

2019 vol.336

12

유림 박물관 기행

자유의 도시에 세워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

오페라 '리글레토', 에필로그 2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2019.12.25-04.05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Eva Arriñán, Swell, Oil on canvas, 2019 © 2019 Eva Arriñán ©

www.facebook.com/artcrushkorea www.instagram.com/artcrush_ www.evakorea.com 070.4800.9301

주최 부산문화회관 **BNI** 부산은행 **COMM** (주)대우증권 **CMAYGALLERY** 주관 **DCOMM** (주)대우증권 **Art-rush** 후원 **부산MBC** **institut ramon llull** **THE WESTIN CHOSUN** *Becoming Nohae*

비발디 “사계”가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1부 | 비발디 “사계” (소네트 버전)
2부 |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앤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서울튜티앙상블
연주



피호영
바이올린



남명렬
배우·내레이션



정희경
소프라노



김준동
바리톤



이석중
악장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권 | R석 3만원 S석 2만원 입장연령 | 만7세 이상

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동반 1인), 의상자, 의사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20% 20인 이상 단체, 정기회원(본인), 예술인패스(본인), 학생 10% 금정구민(본인) *예매는 1일 전 오후 5시까지, 공연 당일 전역좌석에 한해 1시간 전부터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주최 | 금정문화회관 예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공연문의 | 051.519.5661~3

불멸의 베토벤



예술감독 김관명

Beethoven, Egmont Overture in F Major, Op. 84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Beethoven, Piano Concerto No.5 Eb Major Op.73 'Emper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지휘자 오성욱

미야노 니콜라 브랑기에
(Nicols Bringuier)

U. K. O (United Korean Orchestra)

2019.12.6.(금)20:0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을속도문화회관 주관 을속도문화회관 U.K.O. United Korean Orchestra 예매 INTERPARK 1544-1555 티켓 전석 1만원 (사전 예매시 30%할인) 관람연령 만7세 이상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공연문의 051.220.5812 무대감독 이순재 조명감독 박병주 음향감독 서종철

[을속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뮤지컬 코미디



원작: Dan Goggin

since 1991
화끈하고 잘노는 수녀들의 유혹!

넌센스

2019.12.7(토) 14:00 / 1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의 뮤지컬 공연은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부를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지원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로 통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주)뮤지컬넌센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인터파크 티켓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관람 8세 이상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특별기획 송년콘서트

송년콘서트

팝페라 휴(HUE)의

Merry Christmas

2019.12.13(금) /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예감엔터테인먼트 출연진 팝페라 휴(HUE), 피아노 5중주, 프로듀서 강유

관람연령 8세 이상 소요시간 90분 티켓가격 VIP석 20,000원, R석 10,000원 / S석2층15,000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해운대문화회관 문의 051749-7651 티켓할인 누림회원 · 초·중·고 단체 20명이상 40%, 장애인 40%

조기예매 누림회원 · 초·중·고 단체 20명이상 50%, 장애인 50% / 일반 30%,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비용 없음 * 기간 11.22.까지

▶ 누림회원카드 · 학생증 · 장애인카드 · 국가유공자카드 확인 후 발부

해운대 문화회관
특별기획송년콘서트

정형돈/데프콘

SHOW ME THE HIPHOP

쇼미더힙합

2019.12.20.FRI 7:30PM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티켓가격 VIP석2만, R석2만원, B석15,000원 / 티켓예매 인터파크,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관람제한 14세중학생이상

조기예매 누림회원 초·중·고 단체 20명이상 30% / 일반 20%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비용 없음 * 기간 11.29까지

티켓할인 누림회원 초·중·고 단체 20명이상 20%, 장애인 30% --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카드 확인 후 발부

Guest. 고은/에지





A. Marquez Danzon No. 2
단쑤 No.2

C. Bolling Suite for Chamber Orchestra and Jazz Piano Trio
클로드 볼링 오케스트라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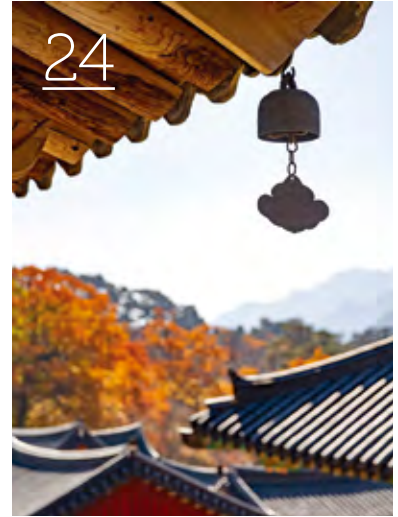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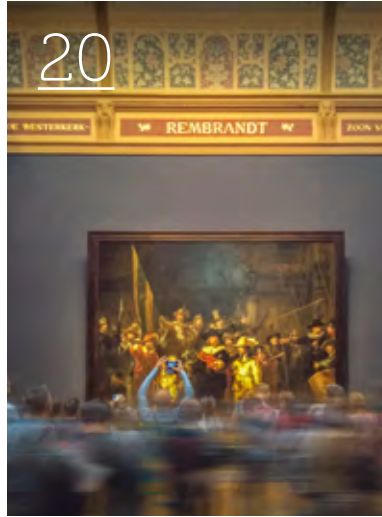
Dvorak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 지휘 | 김광현 | 협연 | 문정재 트리오

2nd

KNN 방송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16 ^{MON} 07:30 ^{PM}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2 2019 December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12월호 통권 33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8 COLUMN**
체서 고양이의 웃음
- 10 SCHEDULE**
12월 공연캘린더
-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 16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⑤ 낙법
- 18 BACKSTAGE OPERA**
오페라 '리골레토' 에필로그 2
- 20 MUSEUM OF EUROPE**
자유의 도시에 세워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 24 TRAVEL WITH YOU**
홍류동 계곡 따라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합천 해인사
- 30 PREVIEW**
- 34 ISSUE**
기해년(己亥年)을 마무리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특별한 송년무대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展
- 42 REVIEW**
- 48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64 NEW BOOK**
새로 나온 책
- 65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⑩



체서 고양이의 웃음

편집위원,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채영희



작년 이맘 때 딸아이가 수능을 친 다음날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어릴 때부터 늘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정든 동물과 헤어지는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아이들에게 엄마와 고양이 중 택하라는 무모한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태어난 지 겨우 두 달된 고양이의 입양을 감행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로 각자의 일을 하느라 말이 없던 가족들이 고양이의 재롱을 보느라 함께 모이게 되었으며, 모두들 귀가하자마자 그 어린 고양이부터 찾기 시작했다. 여리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오묘한 존재의 매력에서 모두가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하루였다. 그래서 이름이 하루가 되었다.



인간이 언제부터 고양이를 기르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날카로운 이빨과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저 우월한 것들을 가지고도 왜 인간 곁에 머무르기를 결정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습우화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이야기에도 개와 고양이가 다투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양이가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온 시기는 아주 오래일 것이라는 짐작만 했다. 데틀레프 블룸은 ‘고양이 문화사’에서 작지만 먹이 사냥에 능숙한 이 맹수가 인간과 친해진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고양이를 ‘문화친근성을 띤 동물’로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온 동물로 보고 있다. 인간보다 2천만년은 앞서 나타난 그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진화과정을 지켜보았을 텐데 왜 스스로 인간의 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고양이 그림과 고양이 미라들로 미루어 4천 년 전 고양이는 이미 이집트에서 가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나일강 구역을 땅에서 생산된 곡식은 저장되었으며, 고양이는 이 곡식을 호시탐탐 노리는 쥐를 사냥하는 데 공헌하면서 가축에서 신으로 격상되었다. 고양이 신이 된 바스테트 여신은 이집트인에게 영향력이 큰 수호신이었으며 사랑과 풍요의 여신으로 인정받았다. 헤르도토스가 남긴 역사서에는 바스테트 여신의 축제 때는 수천 개가 넘는 고양이 미라들이 봉헌물로 바쳐졌다는 기록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의 고양이는 굶주리지도 않았고 고양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당



시 강제 노동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나왔기 때문에 은연 중에 그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어디에도 고양이 이야기는 없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도 날래게 움직이며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기도 하는 등 개와 달리 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러한 태도를 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하여 교회와 고양이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과거 이민족이 신성시 했던 이 고집스러운 동물을 사탄의 분신으로 지정하면서 검은 고양이 수난사가 시작되었다. 1484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고양이는 악마와 계약을 맺은 이교도 동물이라고 선언하면서 마녀로 지목된 여인들과 고양이를 함께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마녀사냥이 감행되었다. 1347년부터 1354년 유럽에 페스트가 만연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고양이는 대량 학살되었다. 사탄의 현신인 고양이를 역병의 원인으로 보고 학살하는 바람에 고양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들쥐와 집쥐가 옮기는 페스트로 상당수 목숨을 잃었다. 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페스트로 희생당했다.

이러한 고양이에 대한 편견은 대항해 시대에 와서 배에서 생활한 고양이들로 인해 변화하게 된다. 당시 무역을 주도하던 범선에 쥐들이 식량과 밧줄을 갇아 먹거나 배에 구멍을 내어 큰 골칫거리였는데 선원들이 배에 고양이를 태우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선원들은 고양이를 다치게 하면 재수가 없다고 여겼으며, 고양이가 잘못하여 배 밖으로 떨어지면 태풍이 온다는 미신마저 가지고 있었다. 1975년까지 영국 해군은 의무적으로 고양이 배에 태웠다고 한다.

문학작품에서도 고양이는 빠지지 않는 소재였고 에드가 앨런 포우 ‘검은 고양이’를 비롯하여, T.S. 엘리엇의 ‘노련한 고양이에 대한 늙은 주머니쥐의 책(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이라는 시집은 전체가 고양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뮤지컬 ‘캣츠’의 원작이 되기도 했다. 또한 수학자였던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체셔 고양이는 ‘실체와 분리된 존재’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광자나 중성자와 같은 입자가 갖는 스핀이나 질량과 같은 물성이 실체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양자 체셔 고양이’ 이론이라고 하니 고양이의 미소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는 한가 보다.



고양이는 ... 이번에는 아주 서서히 사라졌다.

꼬리 끝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씩 웃는 모습이 맨 마지막으로 사라졌는데, 씩 웃는 모습은 고양이의 나머지 부분이 다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때 앨리스는 “나 원 참! 웃음 없는 고양이는 자주 봤지만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니! 태어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이야!”라며 놀라워했다.

조선시대 고양이를 가장 많이 그린 화원 변상벽(卞相璧)의 ‘묘작도’라든가 ‘국정추묘’ 등의 오묘한 고양이의 습성을 보고 있다면 체셔 고양이 마냥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원래 산수화를 그렸던 변상벽은 조선에 자신보다 산수화를 더 잘 그리는 화가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들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 늘 곁에 두고 관찰한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곤 했다. 별명이 변묘(卞猫)일 정도로 고양이 그림이 사실적인데 무엇보다 그의 고양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이 평화롭다.

“재주란 넓으면서도 조잡한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에 정밀하여 이름을 이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오. 나 또한 산수화를 배웠지만, 지금의 화가를 압도하여 그 위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물을 골라서 연습했지요. 고양이는 가축인지만 사람과 친근하지요. 그 굼주리고 배부른, 기뻐하고 성내는 모습들에 익숙해지니 고양이의 생리가 내 마음에 있고, 그 모습이 내 눈에 있어 그 다음에는 고양이의 행태가 내 손을 닿아 나오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고양이도 수천 마리겠지만, 내 마음과 손에 있는 놈 또한 헤아릴 수 없지요. 이것이 내가 일세에 독보적인 존재가 된 까닭이러오.”

변상벽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현재 우리의 시간이 어떠해야 할지를 조근조근 일러 주는 것만 같았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고민해야함을 가르쳐 주었다. 곁에서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그르렁거리며 나에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고양이의 존재에 큰 위로를 얻는다.

12

2019 DECEMB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부산문화회관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부산시민회관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전 전시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1</p> <p>(사)한국음악협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중국의 밤' 17:00 대 5만원·2만원·1만원 (사)한국음악협회(02-2655-3060~4)</p> <p>제4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010-2831-2836)</p>	<p>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백해선 피아노 독주회'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솔라첼로 성악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솔라첼로 성악연구회(010-2330-0994)</p> <p>필로스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챔 임일용(010-8724-5551)</p> <p>극단 청춘나비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19:30 소 전석 3만원/청춘나비(070-8241-2560)</p>
<p>8</p> <p>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콘체르토스' 17:0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오전 11:00, 오후 2:00 소 전석 3만5천원/(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9</p>	<p>10</p> <p>부산시립무용단 2019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공감共感' 11:00 대 전석 2천원(단체예약)/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19:30 챔 전석 1만원/구현진(010-2676-7884)</p> <p>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00 소 무료/(사)희망을여는사람들(554-0832)</p>
<p>15</p> <p>2019 마린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마린뮤즈콰이어(010-5503-9692)</p> <p>음반출반 기념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가독창회 '영혼의 울림으로' 18:00 챔 전석 2만원/리즈벨칸토다숨(010-5343-0682)</p> <p>제2회 김현주 제자발표회 '줄이랑 노래랑' 15:00 소 무료/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010-3589-6878)</p>	<p>16</p> <p>KNN방송교향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대 4만원 2만원 1만원/KNN방송교향악단(850-9568)</p> <p>제8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17:00 중 초대/(사)승인문화재단(010-8496-0691)</p> <p>2019년 이바디예술단 '전통문화예술과 이바디예술단의 소통' 16:00, 19:30 소 무료/이바디예술단(634-6183)</p>	<p>17</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9 송년음악회 '오페라 & 뮤지컬 하이라이트' 19:30 대 전석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1)</p> <p>제4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00 중 무료/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852-6535)</p> <p>강남길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제7회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주회 19:30 소 초대/프리바이올린앙상블(010-9330-5170)</p>
<p>22</p> <p>스탠딩에그 전국투어 콘서트 18:00 대 전석 7만7천원/훈컴퍼니(031-924-121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4:00, 18:0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김해리 피아노 리사이틀 19:0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14:00, 17:00 소 전석 3만5천원/이끌림부산(1644-5764)</p>	<p>23</p> <p>부산콘서트라이더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아트락(010-5468-465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18세기 실내악:현악합주 19:30 챔 무료/윤예술기획(010-6516-9838)</p>	<p>24</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긴 여정'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전병하 반주 리사이틀 '갈라오페라 '리골레토'' 19:30 챔 초대/전병하(010-8787-6008)</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17:00, 20:00 소 전석 3만5천원/이끌림부산(1644-5764)</p>
<p>29</p>	<p>30</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이팝무용단 '똥·방 안의 꼬끼리'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프로젝트 앙상블 S4선물'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하이 클래식 아트 컴퍼니 '오페라 살인-리골레토' 19:30 사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배우창고 '한 여름 밤의 꿈' 19:30 소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p>	<p>3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제야음악회' 22: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진실의 변주' 19:3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배우창고 '한 여름 밤의 꿈' 19:30 소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p>

WED THU FRI SAT

<p>4</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21:0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정유정 플루트 리사이틀 19:30 중 무료/정유정(010-9441-5014)</p> <p>극단 청춘나비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19:30 소 전석 3만원/청춘나비(070-8241-2560)</p>	<p>5</p> <p>김현경 피아노 반주 리사이틀 19:30 중 전석 2만원/YK뮤직아카데미(010-9356-1834)</p> <p>극단 청춘나비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19:30 소 전석 3만원/청춘나비(070-8241-2560)</p>	<p>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호두까기 인형’ 19:30 대 8만원-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0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p>7</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호두까기 인형’ 15:00 대 8만원-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헨델의 메시아 19:00 중 초대/아트락(256-6300, 010-2672-6152)</p> <p>(사)더 솔로이스츠 아마추어 카메라타 제5회 정기연주회 18:00 중 무료/(사)더솔로이스츠(010-8503-0000)</p> <p>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 전석 3만5천원/(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	---	---	---

<p>11</p> <p>부산시립무용단 2019 사랑나눔 특별공연 ‘공감共感’ 10:30 대 무료(단체초청)/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김하람 비올라 독주회 19:30 중 초대/김하람(010-9828-7511)</p>	<p>12</p> <p>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제4회 헤븐싱어즈 정기공연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p>1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Winter Musical Concert’ 19:30 대 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부산일보(461-4437)</p> <p>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김희재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중 3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 새끼’ 11:00, 19:3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p>	<p>1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Winter Musical Concert’ 15:00 대 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부산일보(461-4437)</p> <p>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17:0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 새끼’ 16: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p>
---	---	---	--

<p>18</p> <p>2019 부산솔리스트 앙상블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부산일보(461-4296)</p> <p>제4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00 중 무료/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852-6535)</p>	<p>부산MBC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11-6)</p> <p>제1222회 MBC목요일음악회 ‘3테너 앙상블 클라보체’ 19:30 중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20:00 소 전석 3만5천원/이글림부산(1644-5764)</p>	<p>부산MBC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11-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2019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19:30 중 무료/M&M성악연구회(010-4434-6605)</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20:00 소 전석 3만5천원/이글림부산(1644-5764)</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The Gift of Christmas’ 17:00 대 전석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5:00, 19:0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강수이 비올라 리사이틀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16:00, 19:00 소 전석 3만5천원/이글림부산(1644-5764)</p>
--	--	---	---

<p>2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난타’ 14:00 중 6만원-5만원-4만원/(주)PMC 프로덕션(02-721-7644)</p> <p>신개념 나이트연극 ‘더가이즈’ 14:00, 17:00 소 전석 3만5천원/이글림부산(1644-5764)</p>	<p>26</p> <p>테너 엄정행 송년음악회 19:30 중 전석 3만원/아트락(010-5468-4658)</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프레스티지쇼 ‘모던 파우스트’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명아 추모 음악회 19:30 중 부산체육박물관(010-7128-3048)</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매직큐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17:00 사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_부산연극제작소 동넉 ‘운악(雲樂)-인력거, 오라질 년, 설렁탕’ 14:00, 18: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BS 부산불교방송 특집공방방송 19:00 중 부산불교방송(797-5131)</p> <p>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극단 오오씨어터 ‘토장군을 찾아라!’ 14:00, 18:00 소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p>
--	--	---	--

<p>전시실</p> <p>부산문화회관 제22회 대한서화예술대전 12월 7일(토)-12월 12일(목) (사)대한서화예술협회 342-9971</p> <p>부산시민회관 남광희 고문 김판조 ‘그리운 흔적’ 발간 기념 사진전 11월 26일(화)-12월 1일(일) 제2전시실 정기형 010-4790-9988</p>	<p>(사)한국수석회 부산지역회 전시회 11월 30일(토)-12월 1일(일) 제1전시실 최현주 010-3883-0080</p> <p>제28회 동구문화예술인협의회 작품초대전 12월 2일(월)-12월 5일(목) 제1전시실 부산동구청 440-4065</p> <p>포토클럽하모니 제2회 사진 전시회 12월 6일(금)-12월 12일(목) 제2전시실 포토클럽하모니 010-5499-3392</p>	<p>우암 전창수 서예전 12월 7일(토)-12월 12일(목) 제1전시실 전창수 010-4546-2667</p> <p>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작품전 12월 13일(금)-12월 20일(금) 제1, 2전시실 김혜원 010-2796-0875</p> <p>50년 역사를 품은 스토리텔링 사진展 12월 21일(토)-12월 29일(일) 제1전시실 부산일보사진회 010-2563-5438</p>
--	--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12.27^① - 31^②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중극장·사랑채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www.bscc.or.kr

NEW
EYES
NEXT
WAVE

부대행사 일정

▪ 포럼

주제 |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부산예술 활성화 방안
발제자 | 김종석(과천축제 예술감독/용인대학교 교수)
심문섭(예술은공유다 대표)
전진모(연출/신촌극장 대표)

12월 27일(금)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세부장소 추후공지

▪ 네트워크파티 | 예술사모이자카이

12월 27일(금) 오후 6: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 관객과의 대화

각 공연 종료 후 즉시 *연극공연의 경우, 2회 공연 종료 후 진행

티켓 안내

통합	- 3개 공연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5개 공연 동시 구매 시 50% 할인
패키지 할인	무용 - 무용공연 2개 동시 구매 시 30% 할인
	연극 - 연극공연 3개 동시 구매 시 30% 할인
다원	- 다원공연 3개 동시 구매 시 30% 할인
30% 할인	- 학생 할인(유, 초, 중, 고, 대학생)
	- 경로 할인(만 60세 이상)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본인)
	- 다자녀가족(자녀 3명 이상 등재가족)
	- 단체 할인(20명 이상)
50% 할인	- 예술인패스 소지자 할인(본인)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본인), 의사자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안주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차장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부산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도 핫(!)하다. 왜냐하면 오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재)부산문화회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NEW EYES, NEXT WAVE'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지역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8개의 공연예술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연극, 무용, 다원 등 공연예술 전 장르를 망라한 공연예술축제로, '신진예술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장르별 지역 최고의 예술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기존 신진예술인 지원 시스템과의 차별성

최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역문화재단까지 청년을 위한 지원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라 할 수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의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존의 신진예술인 지원 시스템과는 차별성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부산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개발함으로써 '메이드 인 부산' 레퍼토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공정성이다.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가, 문화기획자, 축제기획자, 평론가 등 13인의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철저히 분리, 운영함으로써 작품 선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적인 발표무대 제공

이번 신진예술인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 만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예술단체 혹은 프로젝트 ▷ 초연, 재연(단체, 작품, 프로젝트 등) 작품 ▷ 개인보다는 단체나 프로젝트 중심의 공연예술 전 장르(연극, 무용, 음악, 다원)로 한정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이 앞서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 공모를 비롯해 챔버페스티벌,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제작 등을 통



커버스토리



매직큐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안보, 노무, 땅, 영(靈) (樂)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진실의 변주'



하이 클래식아트컴퍼니 '오페라 살인'



베어윙스 '연어 밤의 꿈, 꿈, 꿈'

해 음악분야에 있어서 많은 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해왔으며, 향후 오페라 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콘서트홀 건립 등 부산문화예술계의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음악 장르에 있어서는 기악, 성악보다는 극음악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적인 발표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작품은 앞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의 시즌프로그램에 편성할 계획이다.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전 장르를 망라한 8개 작품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총 3개 장르, 8개 작품이다. 근대소설에 우리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을 접목시킨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운악(雲樂)', 셰익스피어의 낭만희극을 판타지 가득한 가족극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배우창고 '한 여름 밤의 꿈', 판소리 '수궁가'를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등 연극에서는 3개 작품이 초청되었다. 또 무용 장르로는 부산의 무형문화재인 지신밟기의 형식을 차용하여 한국형 컨템포러리 댄스로 탄생시킨 한국춤프로젝트 가마의 '진실의 변주', 한국창작무용을 설

치미술과 영상,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으로 풀어낸 이팝무용단의 '똥·방 안의 꼬끼리'가 초청되었다. 특히 다원 분야에서는 그동안 메인무대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3개의 작품이 초청되었는데 조선시대 부산 최초의 서커스를 재연한 매직큐의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미디어 테크놀리지와 환상, 트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무대 퍼포먼스 프레스티지쇼(엘일루전)의 '모던 파우스트', 그리고 연극과 음악이 빚어내는 스릴러 음악극 하이 클래식 아트 컴퍼니의 '오페라 살인-리콜레토'이다.

이번 축제는 연말에 개최되는 축제이니 만큼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의 막이 오르는 12월 27일에는 지역예술계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포럼, 예술인들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파티 '예술인모이자카이'가 진행되며, 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공연에 대한 궁금증을 예술가와 함께 풀어가자는 관객과의 대화가 펼쳐진다. 아직 연말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부산 예술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축제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가작/연극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운악(雲樂)’

12월 28일(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을 재해석한 ‘운악(雲樂)’은 우리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과 접목시켜 ‘신명’의 정서를 무대 위에 구현한 작품으로, 삶의 이면에 감춰진 모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의 순간,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고민한다.



극단 오오씨어터 ‘토장군을 찾아라!’

12월 28일(토)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한국 전래동화를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무대. 화려한 바닷속과 웅장한 육지를 오가는 별주부 자라와 토산생의 목숨 건 이야기가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와 안무로 펼쳐진다.



배우창고 ‘한 여름 밤의 꿈’

12월 30일-31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낭만희극이다.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와 작품의 배경을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이 아닌 빛과 결합한 마술과 무대장치, 시대의상·소품 등을 통해 낭만주의적 연극양식으로 선보임으로써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 무대에 올린다.

참가작/무용



이팝무용단 ‘똥:방 안의 코끼리’

12월 30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채워지면 비워야 한다는 단순한 이치를 망각하고 욕망만을 품은 채 순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한국창작무용과 설치미술 및 영상,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해 풀어낸 작품. 부산을 대표하는 각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따로, 또 같이 목소리를 내며 감정을, 그리고 응어리를 배설한다.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진실의 변주’

12월 3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왜곡되고 자극적인 거짓 정보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한국춤프로젝트 가마의 신작. 진실 같은 거짓과 거짓 같은 진실 사이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혼돈을 한국적 정서가 짙은 춤으로 무대에 펼친다.

참가작/다원예술



프레스티지쇼 ‘모던 파우스트’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모호한 경계선에 놓인 인간을 두고 신과 메피스토타가 내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내기의 중심에 선 무기력과 삶에 대한 지루함으로 가득찬 현대인의 표본 ‘파우스트’. 메피스토타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이유조차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하려 하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타가 만들어내는 망상의 굴레 속에 빠져버리는데...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존재의 이유인가, 그저 무기력함인가.



매직큐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12월 27일(금)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얼른(유랑예인패 사 이에 전승하는 마술의 고유한 용어)’의 역사를 찾아 그 시작을 되새길 수 있는 무대. 조선시대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이 버나(지금의 저글링), 덜미(‘꼭두각시놀음’이라는 전통극), 덧뵈기(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 풍물(사물놀이), 그리고 얼른(현재의 마술)을 가지고 조선 최초의 서커스를 무대에 재연한다.



하이클래식아트컴퍼니 ‘오페라 살인’

12월 30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그 배역에 몰입하여 완전히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한다. 만약 오페라 가수가 메소드 연기에 몰입하게 된다면?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놓칠 수 없는 긴장감과 충격적인 결말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릴러 음악극.



훈훈한 낙엽이 한 잎 두 잎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감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데
 군더더기 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잎이 있고
 바람을 타고 나무의 그늘을 벗어나는 잎이 있다
 어느 잎이나 떨어지는 동작은 깔끔해서
 잎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
 잎이 나서 넓어지고 두툼해지는 한 생애
 잎이 진정으로 되고자 했던 건
 넓고 두툼한 잎이 아니라
 마를 대로 마르고
 얇을 대로 얇아서
 가장 가벼워진 잎이 아니었을까
 한 생애 가졌던 무게를 버릴 만큼 버려
 잎 떨어져 부딪치는 데가
 덜 아프기를 바란 게 아닐까
 나무가 헐거워지는 날
 아무리 많은 잎이 떨어져도
 잎끝 하나 다치지 않고
 부딪치는 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따라 하지 못할
 잎들의 낙법

동길산 詩 '낙법'

66

당신 먼저일지 내가 먼저일지 몰라도

당신도 나도 언젠가는 떨어질 낙엽

99

마당이 폭신하다. 감나무 낙엽이 쌓여서 이불을 깔아놓은 듯 두툼하다. 마당 돌레를 따라서 동그렇게도 걷고 마당 가운데를 가로질러도 걷는다. 발바닥 감촉은 약간 다르다. 동그렇게 걸으면 바삭 마른 잎이 닿는 건조한 느낌이고 가로질러 걸으면 마지막 온기를 품은 잎이 닿는 따뜻한 느낌이다.

발바닥 감촉이 다른 건 낙엽이 달라서다.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라도 낙엽은 다 다르다. 먼저 떨어진 낙엽은 먼저 마르고 나중 떨어진 낙엽은 나중 마른다. 먼저 떨어진 낙엽은 바람에 내몰려 마당 구석으로 밀려나고 나중 떨어진 낙엽은 나무 아래나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낙엽을 밟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한 생애 가졌던 무게를 버리고 평온을 얻은 저들. 나는 언제 썸이나 평온을 얻을 것인가, 나는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떨어지기가 두렵다. 낙엽인들 떨어지기가 안 두려웠을까. 가졌던 무게를 버릴 만큼 버리고서 떨어지는 낙엽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한다.

낙엽은 바라볼 때도 생각이 많아진다. 먼저 떨어진 낙엽은 나중 떨어지는 낙엽을 받아내고 나중 떨어지는 낙엽은 먼저 떨어진 낙엽을 덮는다. 쪼그려 앉아 이불을 덮듯 낙엽에 낙엽을 엮는다. 당신도 나도 언젠가는 떨어질 낙엽. 당신이 먼저일지 내가 먼저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로 포개지리라.

낙엽 하나가 또 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낙엽은 떨어진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럴까. 그러고 보면 사람의 생애나 잎의 생애나 비슷하다. 봄은 파릇하고 여름은 뜨겁다. 단풍 드는 아름다움은 잠시, 시드는가 싶더니 한 생애를 다 한다. 단풍이 들기도 전에 떨어지는 잎은 그 마음이 또 어떨까.

그래도 겨울이 살 만한 건 낙엽 덕분이다. 낙엽은 차곡차곡 쌓여서 땅이 덜 얼게 한다. 땅이 품은 잔뿌리가 덜 얼게 하고 봄을 기다리는 생명에겐 제 한 몸 기꺼이 내어준다. 낙엽을 이불 삼아 겨울을 건디는 미물은 또 얼마나 장한가. 언젠가는 당신과 나를 덮어줄 저 낙엽!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진다.

고성현 선생님,
선생님은 챔피언이시잖아요!
오페라 ‘리콜레토’
에필로그 2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
네? 고성현 선생님이
이번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신다구요?”

(재)부산문화회관이 최초로 제작한
오페라 ‘리콜레토’ 무대에 선 고성현



많은 사람들은 오페라 연출을 하는 나에게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과 어려운 점이 뭐냐고 종종 묻는다. 작품 정하기? 무대 컨셉트 잡기? 의상 디자인? 무대 스페이싱을 기반으로 한 동선 굿기? 많지 않은 리허설 횟수에서 공연 최상의 퀄리티 뽑아내기? 등등 묻는 분들은 답을 대략 정해놓고 내게 수십 개의 질문을 하곤 한다. 나는 그때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가장 어려운 작업은 참여자 모두와의 스케줄을 잡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휘자,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캐스트를 비롯하여 연출팀의 모든 스태프들과의 시간 조정이 가장 어렵다. 그뿐이랴!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의 스케줄들도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 관객까지의 스케줄은 차치하더라도 각각의 사람들과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게다가 이번처럼 최정상급의 예술가들이 모두 모여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바쁜 이들에게 그 누구의 편의를 봐줘서도 안되며 중립적이고 서로를 배려하여 시간을 분배하고 구성해야 하기에 늘 이 시간과의 싸움이 긴장감을 들게 한다.

오페라는 터너옥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조명을 맞추기 위해, 또는 무대감독의 무대 전환을 위해 수백 명의 인원들이 리허설 때 계속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덕션팀과 나의 조연출은 매일 스케줄표를 눈이 빠지게 들여다본다. 1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장면들에서 각자 나오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기에 반복, 암기로 연습을 하면서도 균형을 잃으면 안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무대에서, 공연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 첫 작업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스케줄표를 짜는 것이다. 그래서 조연출과 매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A4 용지의形形色색 스케줄표를 눈이 빠지게 들여다본다. 스케줄표에 의해 연습을 하고 이후 리허설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우리 연출부가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공연이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공연 자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공연 모드로 시간이 다 잡혀지기에 마음이 놓인다. 성악가들은 클래식 콘서트의 경우 음악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2회~4회 이내에서 연주를 한다면, 오페라의 경우에

는 한 장면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횟수의 연습에 동참해야 하기에 매일 매일이 수많은 스케줄 조합의 연속인 셈이다.

나는 이전에도 밝힌 바와 같이 (재)부산문화회관 주최의 '리콜레토' 공연 기간에 원래 이탈리아 국제성악콩쿠르 심사위원이 잡혀 있었지만, 이 작품에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이 나온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작품에 참여하기로 했다. 내가 연출을 승낙한 후 모든 일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착착 잘 진행되었다. 크리에이티브팀 스태프들의 디자인도 잘 나왔고,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앞으로의 연습 일정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고성현 선생님의 공연 참여가 어렵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곧바로 고성현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받는다. 선생님은 내게 “이 선생, 내가 타이틀 롤인데 연습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대부분 후배들인데 그들에게 참여하는 분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겠나. 차라리 아쉽지만 이제라도 작업에서 빠지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이해해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뿔싸! 그가 안하면 나는 뭐지?’라는 생각보다 이번 프로젝트에 무대, 의상, 분장의 컨셉트도 원탑인 고성현 선생에게 맞춰 진행했고, 부산에서 ‘리콜레토’에 그가 출연하는 것이 너무나 뜻깊고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더욱 아쉽고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부분의 연출가들은 이런 대가들과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붙잡고 많은 시간 작업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선수다. 그는 더더욱 최고의 선수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보다 집약적이고 밀도 높은 시간의 작업을 한다면 역시 최상의 작품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바쁘고 힘드시고 부담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배들은 물론 선생님의 리콜레토를 듣고 싶어 하는 부산의 많은 관객들에게 이번 작업에서는 귀찮고 힘든 여정을 해내셔야 할 거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챔피언이시

잖아요! 챔피언은 의무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챔피언은 더 빛나는 것이니까요. 그 대신 저는 챔피언이신 선생님의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 우리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믿어 주세요!” 사실 이것보다 아주 장황하게, 길게 많은 언어로 그를 설득했었는데, 그때 나는 불현듯 그가 바리톤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생각난 것이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 선생, 그 의무라는 말이, 챔피언이라는 말이 내 맘속에 딱 들어왔네. 나 이번에 이 선생과 함께 할게, 그리고 이 선생을 믿고 따라가 볼게”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진심이 통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제시한 공식적인 연습 일정에서 일주일 전에 자신이 먼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겠냐며 양해를 구했다. ‘리콜레토’ 공연 즈음에 연주자로는 물론 교수로서도 너무나 많은 일정들이 있기에 그런 것이었다. 공식적인 연습을 하기 일주일 전, 이미 연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의 의지와 나의 뜻을 이해한 많은 캐스트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참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의 연습 성과를 거두었다. 공식적인 연습이 들어가기 전 미리 전막의 장면들을 구상하고 준비한 것이 우리 연출 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수많은 영감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점이 공연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한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부재 시에도 우리는 이미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은 상태였고, ‘리콜레토’ 캐스트가 트리플이었기에 타이틀 롤이 늘 연습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 다행히 그런 점들이 가능했다.

오페라 가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서 스케줄에 가장 까다롭고 컨디션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에 많은 것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소리를 내어 감동을 주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내와 배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치 헤어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예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너무 비약한 것일까? 저물어 가는 2019년을 바라보며 새로 구입한 2020년 스케줄 북에 기입될 다양한 날들을 만들어 가는 희망이 나를 힘나게 한다.



자유 의 도시에 세워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 1 렘브란트의 '야간순찰'이 전시된 방
-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 야경
- 3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모두 자유를 원하지만... 공존해야한다

유럽의 가장 낮은 지형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기원 후 1100년경부터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고 한다. 일명 유럽의 배수구라 불리던 이곳은 물결물결한 지층과 썩은 수목질인 토탄의 습기 때문에 농경지로 부적합했으나 사람들은 그 습지에 인공적인 수로를 파서 지층 속에서 나쁜 성분과 소금기를 빼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은 새로운 농경지가 되었지만 그만큼 지층은 주저앉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제방을 쌓고 지속적인 물 관리를 하게 된다. 모두 노력해서 땅을 얻었고 이후에도 함께 관리해야 되는 이런 환경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의 상반된 토끼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네덜란드 특유의 문화를 만들었다.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고 지정된 바(bar)에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언론, 출판업, 상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인물들을 탄생시키는데 철학자 스피노자, 화가 렘브란트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했고,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던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도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발전과 화가 렘브란트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배를 이용한 무역이 발달했는데 특히 암스테르담 출신 어부들은 그들의 주 수익원인 청어가 빨리 썩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먼 바다를 다녔다고 한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칼뱅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고 개인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그들의 신앙원리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유의식을 가진 상인계층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17세기가 되면서 네덜란드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가 오늘 소개하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이다.



2



3



4

4 미술관 내부

5 기존의 전통적인 빛과 어두움의 표현과는 달리 빛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렘브란트는 '야간순찰'에서 반닝코크 대장이 든 손의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전체 작품이 마치 전통적인 명암법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6 렘브란트가 즐겨 썼던 반짝이는 금속과 질감의 표현

7 렘브란트 '야간순찰'



5



6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대 학도시 레이던에서 방앗간 주인의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 났다. 어머니 역시 비슷한 직업을 가졌으니 렘브란트는 비 록 귀족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경제발전과 함께 그림산업 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태어났던 렘브란트는 자연스 럽게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렘브란트는 야코프 판 스 바넨뷔르흐(Jacob van Swanenburgh) 밑에서 3년간 미 술 수업을 받았고 이후 피터르 라스트만(Pieter Lastman) 밑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둘 다 명암의 대조를 극적으로 표 현했던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 알려져 있다.

20대 중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렘 브란트는 그곳에서 초상화 전문 화가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 기 시작했다. 특별히 1632년 외과의사협회에서 주문한 '니 콜라스 박사의 해부학수업'이라는 집단 초상화는 당시 최고 의 명성을 전해주었으며 이후 자신을 후원해주던 미술상인 의 조카 사스키아(Saskia van Uylenburgh, 1612~1642) 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아버지가 시장 출신으로 막대한 재 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스키아와의 결혼으로 인해 렘브란트

는 누구보다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결혼 후 태 어났던 두 명의 딸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아내의 친척 들과 법적다툼 등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특히 '야간순찰(Night watch, 1642)'로 알려진 자 경대의 집단 초상화를 그린 후 그에게는 거짓말처럼 힘든 상황이 몰려온다. 자신의 아내 사스키아는 8개월 난 아들 하나만 두고 세상을 떠났고 이때부터 그림의 주문량도 줄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렘브란트의 작품, '야간순찰'은 당시 그에게는 고난의 시작 과도 같은 그림이었지만 지금은 렘브란트를 대표하는 작품 이 되어버린 그림이다.

원래는 야간순찰이 아니었던 작품

1800년 국립 미술 갤러리로 문을 열고 1885년 공식적으로 개관한 암스테르담 국립회화관은 15세기부터 19세기 네덜 란드 회화가 중심을 이루는데, 특히 17세기 네덜란드의 황 금기 때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서는 길드의 단결을 도모하면서 함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



에 개인 초상화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단체초상화는 당시 매우 흔한 주제였는데, 오늘 소개하는 렘브란트의 '야간순찰'은 암스테르담 국립회화관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야간순찰'이라는 제목은 그림이 그려지고 한참 지난 후에 물감이 어두워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반닝코크 대장의 민병대'로 알려져 있다. 대낮에 민병대가 출발하는 순간을 표현한 것인데 번쩍이는 금속이나 촉감이 전해지는 옷감의 표현은 렘브란트가 즐겨 썼던 기법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빛의 표현이다. 렘브란트는 어린 시절부터 빛과 어둠의 대비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면 사실 전통적인 빛과 어둠의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회화의 빛의 방향은 일정하게 계산되어 표현되는데, 렘브란트의 작품은 그런 빛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인물들의 그림자의 방향도 제각각이며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다들 환하게 빛나고 있다.)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가장 앞쪽에 위치한 반닝코크 대장이 든 손의 그림자를 부관의 옷에다가 뚜렷하게 표현하여 그림 속 빛이 11시 방향에 있다는 것을 감상자에게 인식시키고는 자의적으로 빛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빛의 자유로운 사용은 19세기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에나 회화사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점에서 렘브란트는 시대를 앞서간 화가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유로운 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네덜란드를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매우 엄격한 칼뱅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도 합리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급진적인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결론을 이루며 지극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통적인 회화의 법칙을 벗어나 자신의 빛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렘브란트 역시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던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 생각한다.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음악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음악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약이고, 고통 받는 자에게는 독이며, 귀머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어떤 현상이나 사물은 언제나 상대적일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사람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두 자유를 원하지만 또한 공존해야 된다.

8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개인 초상화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 초상화가 매우 흔했다. (사진은 프란스 할스와 피터르 코데의 단체 초상화)



테마가 있는 여행



홍류동 계곡 따라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합천 해인사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던 지난 11월 8일, 정기회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1월의 테마여행지는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합천. 이른 아침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늦가을 정취 속으로 떠나는 막바지 가을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음이 가득하다.



1-2-4-5 늦가을 정취로 가득한 해인사
3 스님의 법고소리로 가득찬 해인사 구광로



3

세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 통도사, 수많은 대덕고승을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곳이다.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부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 두 번째 문인 봉황문 앞에 서자 해인사 창건 식수로 알려진 1,200년 수령의 고사목이 해인사의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봉황문은 사천왕상을 모신, 일명 사천



4



5

왕문으로 봉황문에 들어서자 탕화로 그려진 사천왕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험악한 표정의 거대 장승이 서있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해인사의 사천왕상은 탕화인데, 이는 수차례 해인사 화재로 사천왕상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황문 입구에는 화마를 막고 불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소금을 묻어놓은 돌무덤 ‘염주석’이 자리하고 있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단오날이면 염주석에 소금을 묻는 행사를 가져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행사를 시작한 1800년대 후반부터는 단 한 번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해탈문을 지나 설법을 듣고 공부하는 구광루(九光樓)에 들어서자 때마침 스님이 두드리는 법고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진다. 이 곳 해인사에서는 새벽 3시 19분, 오전 10시 49분, 저녁 6시 39분 등 하루 세 번 법고를 두드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법고소리를 뒤로 하고 절의 중심인 대웅전 앞에 서자 ‘대적광전’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창건된 해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다른 사찰과 달리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 부른다.

테마가 있는 여행



6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사찰 해인사 7-8-9 국내 유일의 대장경을 테마로 한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의 마지막 답사지는 해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장경판전은 벽면의 위아래 창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을 때는 머금고 습기가 없을 때는 내보낼 수 있도록 내부 흙바닥을 소금, 숯, 흰가루, 모래로 쌓는 등 최적의 항온, 항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경판전은 조선 초기 과학의 집대성이자 그 시대가 낳은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0년 가까이 대장경판 원형을 잘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쏟아진다. 장경판전 답사를 마지막으로 해인사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회원가족들은 해인사 공양간에서의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소찬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오후 일정은 여행 출발 전부터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 입구에서 홍류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은 특히 붉은 가을 단풍이 장관이다. ‘흐르는 물조차 붉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지난 2011년 팔만대장경 간행 1천년을 맞아 조성된 길로, 가야면 야천리에서 해인사까지 홍류동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7.2km 구간이다. 전체가 5

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회원들은 각자의 체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여 떠나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해인사 소리길의 절경을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소리길이 시작되는 입구에 자리한 대장경테마파크. 이곳은 국내 유일의 대장경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공간으로,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해인사와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대장경테마파크 광장에 들어서자 때마침 2019 합천기록문화축제 기간 중 열렸던 ‘백팔만송이 국화전시회’가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 광장 내는 국화꽃 향기로 가득하다. 대장경 조판 이전부터 경전의 전래와 역사,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판전의 신비한 과학에 이르기까지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조명해놓은 전시관을 해설사와 함께 둘러본 회원들은 영상관으로 자리를 옮겨 실감나는 5D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을 관람했다.

영상 관람을 끝으로 합천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정기 회원 가족들은 저물어가는 가야산 산자락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이번 합천여행은 홍류동 계곡의 붉디 붉었던 단풍만큼이나 선명한 추억으로 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58개국 318개 도시 투어!

COOKIN'
NANTA
부산행



2019년 12월 20일(금)~12월 25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예매



인터파크 티켓

THE
NANTA

문의 02-721-7644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PMC PRODUCTION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Preview

1



일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발레의 걸작 ‘호두까기 인형’이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국립발레단과 함께 부산을 찾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호두까기인형을 선물받은 주인공 소녀 마리의 꿈 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를 그린 ‘호두까기인형’은 1891년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을 각색,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와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콥스키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밝고 경쾌하며 사랑스런 음악과 함께 동화적인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로, 이듬해인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후 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발레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2000년 러시아 볼쇼

이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을 국내 초연한 후 지금까지 동일한 버전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볼쇼이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30년 이상 볼쇼이발레단을 이끌었던 발레계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안무로, 고전발레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스토리텔링 강화에 역점을 두어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난도 발레연출과 탁월한 해석을 더하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발레로 탄생시켰다. 특히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펼치는 역동적인 안무와 묘기에 가까운 고난이도 동작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 2015년에 이어 ‘호두까기인형’으로는 4년만에 부산을 찾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다. 대표적인 전막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와 파리오페라발레단 전 부예술감독 파트리스 바르가 안무한 ‘지젤’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6일은 단원 광화경, 구현모가, 7일에는 수석무용수 박슬기, 이재우가 마리와 왕자로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_ 그 섬, 별이 빛나는 밤에

2019년 첫 정기공연으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테베 3부작'을 선보였던 부산시립극단이
2019년을 마무리하며 셰익스피어 비극 '오델로'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는 셰익스피어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쓰여진 작품으로, 베네치아의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악인 이아고에게 속아넘어가 선량하고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해하게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40대 젊은 연출가 중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출가이자 배우인 양지웅이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내는 새로운 '오델로'를 선보인다. 그동안 부산의 연극판을 곳곳이 지키며 사실적이면서도 담백한 작품 스타일 속에 인생의 소소한 부분들을 녹여내면서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양지웅은 극단 미지씨어터 상임연출가로 있으면서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입살이', '실종' 등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연극 '오델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해 걸어오는 한 여인과 그녀를 에워싼 묵시록적인 이미지의 향연으로 시작된다. 무어인 장군 오델로는 베니스의 권력자 브라밴소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와 열애하고 결혼한다. 캐시오에게 부관 자리를 빼앗기고, 무어인에게 앙금을 가진 오델로의 기수 이아고는 계락을 짜내어 캐시오와 오델로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어리숙한 백작 로더리고를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이아고와 그의 간계로 쓰여진 대본과 연극 속의 배우로 전락하는 비극의 주인공들. 그러나 이 모든 연극의 뒤에는 이아고조차 알지 못했던 배후의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비정한 속셈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번 작품에서 연출가 양지웅은 "셰익스피어 원작에 수놓아진 치밀한 심리 묘사와 비극에 이르는 그의 극작술 넘어 보이는 무언가에 시선을 옮겨보았다"며 "오델로의 병적인 질투와 행동에 순종만으로 자신의 운명을 걸어가려했던 데스데모나를 현실에 맞추어 좀 더 주체적이면 현실적인 여성으로 그려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립극단은 무대에 앞서 12월 2일, 작품의 이해를 돕는 예술감독 김지용의 '오델로' 강의와 공연의 주요 장면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시 12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Preview

2

프리뷰



Preview

3

일시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4:0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새끼’

춤으로 그려낸 성장동화,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의 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새끼’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다.

예술감독인 신라대학교 이태상 교수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는 지난 2002년부터 ‘잡종 블루스’ ‘게르니카’ ‘괴벨스의 입’ ‘빨난 낙타’ 등 프로젝트성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이태상 예술감독은 중앙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무용콩쿠르, 신인무용콩쿠르를 비롯해 전국대학무용콩쿠르에서 안무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작품활동을 통해 ‘평론가가 뽑은 최우수 무용가’에 선정되는 등 국내 무용계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국제 감각을 익힌 그는 2005년과 2006년 프랑스 르와요몽 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젊은 안무가 워크숍’에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예술

가에 선발되어 참가했으며, 이후 프랑스 파리 국립무용센터로부터 초청받는 등 국제활동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미운 오리새끼’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명의 동화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첩시켜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불신과 세대간의 간극을 좁히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한 춤의 시선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렉처퍼포먼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작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 ‘미운 오리 새끼의 탄생’에서는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미움과 폭력에 노출되어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미운오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2장 ‘새끼 오리의 외침’에서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어린 새끼 오리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며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마지막 장인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되어 날다’에서는 힘들고 고달팠던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그저 눈부시게 하얀 외모만을 자랑하는 그런 백조가 되었을거라 자각한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날개를 뻗어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보이스 뮤지션 문수경을 비롯해 노영재, 손영일, 권아름, 이은지, 이종윤, 이제형, 장혜진 등이 출연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가 크리스마스 시즌 부산을 찾는다.

지난 1997년 10월 초연무대를 가진 후 현재까지 전 세계 58개국 318개 도시, 관객 1,414만명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난타’는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는데 이어 2004년 2월 아시아 공연물로서는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공연계의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난타’는 국내 최초로 서울 정동에 첫 전용관을 설립한데 이어 계속되는 해외공연의 성공으로 아시아 최초로 브로드웨이에 전용관을 설립하는 등 세계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세계적인 공연으로 발돋움해왔다. 비언어극인 ‘난타’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스토리와 몸짓

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국적, 나이, 언어,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무계의 감동을 준다. 특히 기존의 난버벌 퍼포먼스극이 리듬과 비트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단조로움을 주었다면 ‘난타’는 주방이라는 보편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드라마틱 요소를 대입시켜 누구라도 신명 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무대가 시작되면 세 명의 요리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인이 깜짝 등장하고 예정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며 요리 목록을 건넨다. 설상가상 자신의 철부지 조카를 데려와 요리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음식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주어진 시간을 한시간 남짓!! 과연 이들은 무사히 결혼 피로연을 마칠 수 있을까?

‘난타’는 한 시간 내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 4명의 요리사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퍼포먼스로 유쾌하게 펼쳐진다. 특히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주방기구를 이용해 펼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몸놀림이 가히 압권으로, 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훑날리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보여 주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난타’는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난타’만의 색다른 관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시 12월 20일(금)-25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12/25일 공휴일은 오후 2: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3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5% 할인)
문의 (주)PMC 프로덕션 02-721-7644

 Preview

4

Adieu 2019, Welcom 2020

기해년(己亥年)을 마무리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특별한 송년무대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시립예술단만의 특별한
송년무대가 12월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12월 17일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하이라이트로 꾸며지는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2019 송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사랑받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의 '2019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온 가족을 위한 음악선물 'The Gift of Christmas',
신명 넘치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Odyssey(긴여정)', 그리고 2019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20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9 제야음악회'까지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 벽찬 감동의 순간을 가까운 지인, 가족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져보자.

1st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2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오페라&뮤지컬 하이라이트'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부산시립예술단 송년무대의 첫 번째 주자인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로 송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
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해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윤서준, 바리톤 박요셉, 색소폰리스트 최정섭의
협연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뮤지컬 '위키드'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애니
메이션 '알라딘' OST 등 주옥같은 곡들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토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
의 묘약' 연출 및 해설, (재)부산문화회관의 첫 제작 오페라
'리골레토' 연출로 부산 관객과도 친숙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

주는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있다.

특유의 맑은 음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사랑받고 있는 강혜정은 뉴욕 메네스음대 재학시절이던 2005년, 뉴욕 Kaye Playhouse에서 공연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데뷔, 뉴욕타임즈로부터 ‘다채로우면서도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강혜정은 올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이 처음 제작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과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다.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테너 윤서준은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2018 상반기 한예음악콩쿠르 성악 1

위,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남자 1위, KBS 한전음악 콩쿠르 성악 남자 금상, 대구성악콩쿠르 우수상, 동아음악콩쿠르 성악 남자 1위 등 국내 우수 콩쿠르를 휩쓸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JTBC ‘팬텀싱어’ 본선 진출자로 화제를 모은 바리톤 박요셉은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일반대학원 성악과를 수료하고 그동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면무도회’, ‘코지 판 투테’ 등 오페라 무대와 이디야뮤직페스티벌, 예술의전당 한여름밤의 가곡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Shall we sax saxophone quartet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최정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도봉, 파리국립음악원, 뽕모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Leopold - Bellan 국제콩쿠르 1등, U.F.A.M 국제콩쿠르 2등, Loire - Atlantique 국제콩쿠르 1등 등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2nd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12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11~6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송년무대를 가져온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합창’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베토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작곡한 역작이자 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정호윤, 바리톤 강형규가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지휘 최수열

풍부한 성량과 깊은 감성으로 노래하는 소프라노 서선영은 2011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주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소프라노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서선영은 2011/12시즌 스위스 바젤 국립극장에서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로 데뷔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가화제



활동해오다 2016년 4월, 국립오페라단의 ‘루살카’를 통해 국내 오페라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서선영은 2016/17시즌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로 오페라 노스(Opera North)에서, 같은 달 도이치 오퍼 베를린에서 ‘발퀴레’로 데뷔한 후 2019/20 시즌 ‘나비부인’을 시작으로 프랑스 무대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국인 메조 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2004년 귀국 후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과는 바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 ‘발퀴레’, 모차르트 ‘레퀴엠’,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 대한민국 광복 6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수 무대를 통해 함께 했으며 2014년 여름 City of London Festival 에서는 정명훈이 이끄는 런던 심포니에 이어 2015년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2016 마카오에서 열린 부활절 음악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양송미는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테너 정호윤은 지난 2003년 독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솔리스트로 전격 발탁된 후 2006년부터는 세계 3대 최고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불리는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로, 비엔나 국립오페라에 한국인 테너로서는 처음으로 ‘리골레토’의 만토바 공작 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졌다. 특히 이듬해인 2007년에는 동 극장에서 공연한 ‘라보엠’, ‘마농’으로 호평받아 현지 언론의 주목과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강형규는 지난 1999년 스페인 빌바오 아리아가 극장에서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 파르마 극장,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부세토 극장, 린츠 시립극장 등 오페라 주역으로 유럽무대에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 시즌 개막으로 잔도나이의 오페라 ‘I cavalieri di ekeb’에 출연한 강형규는 이 무대를 통해 각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아 이탈리아 유력 오페라 잡지인 l'opera 11월호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한국 남성 성악가로서는 처음으로 베로나 야외극장 페스티벌에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로 데뷔무대를 가졌다.



3rd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The Gift of Christmas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The Gift of Christmas'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언정, 엘렉톤 연주자 김희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출연, 겨울을 주제로 한 합창곡과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1부 무대에서는 이현철 곡 '겨울은'을 시작으로 이 시대 작곡가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현대작곡가 에릭 휘태커의 '다섯 곡의 히브리 사랑의 노래(Five Hebrew Love Songs)'을 들려준다. 이 곡은 휘태커가 그의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 가슴 벅차게 두근거리던 사랑의 감정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사랑의 시로 대변하고, 히브리어 가사를 회화적

인 멜로디로 작곡한 곡으로, '한 개의 그림(Temuna)', '가녀린 신부(Kaka kalla)', '대개는(Larov)', '눈이예요!(Eyze sheleg)', '부드러움(Rakut)' 등 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언정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미국 인디애나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언정은 그동안 Chicago Civic Orchestra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뮤즈앙상블, BS오퍼스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출연, 크리스마스 캐롤과 재즈 등 경쾌한 곡들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해준다.

2부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악지도자로 있는 소프라노 김희정의 무대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모음곡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려준다. 엘렉톤 연주자 김희은, 연극배우 박찬영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독일 캐롤 '소나무야(O Tannenbaum)', 미국 캐롤 '겨울나라(Winter Wonderland)'를 비롯해 즐거운 아침, 크리스마스, 사랑의 주, 거룩한 밤, 그 어린 주 예수, 징글벨 등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전자악기인 엘렉톤은 일본의 야마하에서 개발한 키보드와 신디사이저가 합쳐진 2단 오르간으로, 폭넓은 음역과 기교의 연주가 가능하면서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향까지 재현할 수 있다.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엘렉톤 연주를 들려줄 피아니스트 김희은은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 및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반주과, 이태리 Accademia Musicale Pescarese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더뮤즈 오페라단 음악코치로 있으며 피아노 및 엘렉톤 전문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의 나레이션을 맡은 연극배우 박찬영은 그동안 연극 '리어왕', '페드르', '지금 여기', 영화 '친구', '태풍' '감기' 등 100여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해왔으며, 제9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제8회 포항국제연극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멤버로 지난 2011년까지 단원으로 활동하다 정년퇴임한 박찬영은 퇴임 후에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연극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음악회 3

Odyssey(긴여정)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지휘 **진성수**



태평소 **김경수**

설장구 **송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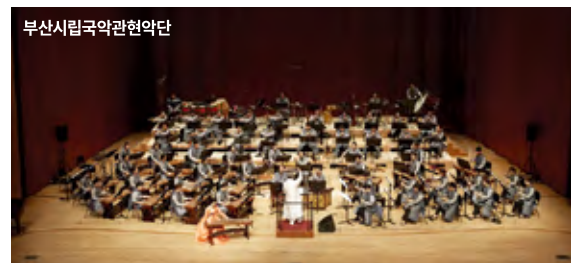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우리의 소리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긴여정)’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세 번째 무대로, 전 정동극장 음악 자문위원을 역임한 지휘자 진성수가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깊은 해석력으로 정평난 진성수 지휘자

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Master of Music Conducting)을 졸업했다. 중앙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진성수는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댄스컬 ‘춘향’, 국립창극단 ‘메디아’, 터키 이스탄불 ‘서울의날’ 문화행사, 박범훈 소리연 50주년,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성남시립국악단 ‘성남풍류’, 2018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溫故知新)’,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청주시립국악단 ‘젊은예인’,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공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민요 ‘아리랑’을 주선율로 한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특별히 마련한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캐롤 모음곡’, 경쾌하면서도 시원한 소리가 일품인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마을축제의 분위기를 국악관현악의 신명으로 표현한 ‘축제’, 재일교포 3세인 작곡가 민영치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박진감 넘치는 장구가락으로 들려주는 설장구 협주곡 ‘오디세이-긴여정’,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관악합주곡인 ‘수제천’의 규모를 확대하여 그 장중함을 더한 ‘풍류 수제천’을 들려준다.

태평소 협연자인 김경수는 제4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악실내악단 ‘산, 바다, 해’ 동인, 창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있으며 부산예술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설장구 협연자인 송귀철은 사물놀이 ‘미르’ 대표로 있으며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협연,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초청 공연, 글로벌피스 컨벤션 축하공연, 부평풍물대축제 청출어람 젊은명인전에 출연한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5th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제야음악회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여자경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온 '2019 제야음악회'에서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 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여자경이 지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피아니스트 이진상, 소프라노 김신혜,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종이 출연, 2019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9년을 보내는 1부 무대에서는 들리브 오페라 '라크메' 중 '꽃들의 이중창', 비제 오페라 '카르멘' 서곡, '하바네라',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쿠르티스 '물망초',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2부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4악장을 시작으로 레하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레하르 오페레타 '주디타' 중 '뜨겁게',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로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

지휘자 여자경은 200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에서 3위, 2005년 제1회 수원 국제지휘콩쿠르에서 Special Prize, 2003년과 2005년 프랑스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국내외의 우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과 더불어 대회 최초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화려하게 등장한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2013년 '윤파 임원식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프라노 김신혜는 이탈리아 피아첸차 시립극장이 주관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오페라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16년에는 한국 여성 성악가 최초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전곡을 성공적으로 연주하여 여러 장르의 성악곡을 아우르는 연주자로 호평받았다. 깊고 풍부한 색채의 테너 국윤종은 비엔나 폭소오페에서 오페라 '라보엠'의 루돌프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오페라가수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이진상

소프라노 김신혜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이 부산을 찾는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유쾌하고 사랑스런 화풍으로 그림에 담고있는 에바 알머슨은 특히 넉넉하고 둥근 얼굴, 크진 않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12.25^수 - 4.5^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 10시-18시(입장마감 17시) *26일 10-14시 운영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1천원, 어린이 9천원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특별할인 7천5백원 / 36개월 미만 유아 무료
 정기회원 3천원 할인(1인 4매까지)
 (주)디커뮤니케이션 070-4800-9301, www.evakorea.com



◎ Swell
 Eva armisen, Swell,
 2019, Oil on canvas©
 Eva armisen 2019®

‘일상의 행복’을 소재로 사랑스러운 화풍

스페인 출신의 에바 알머슨은 1969년 사라고사에서 태어나 바르셀로나에서 회화를 공부한 후 스페인은 물론 한국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전 세계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코카콜라, 두산, 스킨푸드, 삼성, 홍콩 TMT 플라자, O’2nd(오즈세컨) 등과 협업해 공공미술, 설치, 공익광고 등을 진행했으며, 각종 TV 시리즈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일상생활 속 사소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에바 알머슨의 작품들은 평범한 것들을 특별한 차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기뻐하고 기념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많은 사람들은 에바 알머슨의 그림이 마치 마술과도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일상들이 그녀의 작품 안에서는 특별한 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HOME(집)을 주제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 A day at the beach

Eva armisen, A day at the beach, 2019, Oil on canvas©Eva armisen 2019®





● Diner Eva armisén, The diner, 2018, Oil on canvas© Eva armisén 2019®

이번 전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천안, 대구에 이어 이 곳 부산에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시를 갖는다. 특히 서울 전시에서 관람객 21만명을 동원하는가 하면 천안과 대구에서도 지역 관람객수 신기록을 기록하며 기존 전시 관객층인 2, 30대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얻으며 전시의 대중화를 실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산을 주제로한 애정 가득한 신작

이번 부산전에서도 에바 알머슨 특유의 유머와 사랑을 가득 머금은 유화,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그녀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무려 3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녀의 방’은 서울, 천안, 대구 전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시된다. ‘해녀의 방’은 우연한 기회에 제주 해녀를 만나 그 첫 만남에 그녀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버린 에바 알머슨의 해녀에 대한 애정이 담긴 곳으로, 지난 2017년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이 쓰고 에바 알머슨이 직접 삽화를 그린 동화책 ‘엄마는 해

녀입니다’의 원화들과 함께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상이 함께 상영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을 주제로한 에바 알머슨의 애정 가득한 신작들이 최초 공개되어 부산 관람객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10년 전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작품을 통해 꾸준히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그는 그동안 ‘한국은 항상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준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그런 그의 특별한 사랑을 담아 이번 투어기간 동안에는 에바 알머슨에게 영감을 준 한국의 풍경, 음식, 사람 등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더불어 전시가 열렸던 서울, 천안, 대구를 담은 신작들을 선보이면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올겨울 따뜻한 감동 선사

2019년을 마무리하며 올겨울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 Cold on the outside

Eva Armisén, 2017,
Cold on the outside,
Oil on canvas©
Eva armisén 2019®



● Mom is haenyeo

Eva armisén, Mom is Haenyeo, 2017©Eva armisén 2019®



클래식 예술로 승화시킨 메세나 기업의 60년

동성 창립 60주년 기념 ‘동성 페스타’



◆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형

부산의 향토기업인 동성화학(회장 백정호)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동성 페스타’를 열었다. 부산 시민 1천400명을 초청한 이번 음악회는 메세나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모범을 보여줬다. 부산 출신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봉을 잡고 부산의 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11월 7일 부산문화회관은 초대받은 부산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열기와 자부심으로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오충근은 클렘페러를 연상시키는 느리고 장중한 지휘로 곡을 이끌었다. 그러다 플루트를 위시한 목관악기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활기차게 곡을 이어나갔다. 엄격하고 우직한 베토벤적이면서도 밝고 희망적인 서곡이었다. 창업주인 고 백제갑 회장이 좋아했던 곡이라고 했다. 깨어있고 먼저 생각한 사람,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선지자 프로메테우스의 의미가 어느 기업가와 오버랩됐다.

이어서 김다미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협연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인 오충근이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리스트의 마음을 읽으며 사려 깊게 서포트하는게 연

주에서 느껴졌다. 1악장에서 김다미의 첫 음은 꽃망울이 열리듯 조심스럽고 경이로웠다.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바이올린이었다. 빨라지는 패시지에서도 능란했고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모습이였다. 곡선미의 모차르트가 여기 있었다. 카덴차에서는 섬세하고 청초한 모습을 자아냈다.

2악장에서 바이올린에 빛이 쏟아졌다. 순수하고 성스러운 패시지를 바이올린이 새겼다. 비브라토도 극히 자연스러웠다. 오케스트라의 절제 속에 흐름을 이어갔다. 애매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연주의 매무새가 말쑥했다. 카덴차에서 중음과 고음의 매력을 선보였다. 3악장에서 김다미는 몸짓과 함께 곡선의 해석을 이어갔다. 중역대의 느긋하고 원숙한 연주가 돋보였다. 굵이를 만들어 가는 찰진 연주였다. 터키편의 이국적 성격이 곡을 휩쓸고 지나간 뒤 빠른 패시지도 아무지게 처리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지는 선이 지극히 바이올리니스트했다. 근래 보기 드문 수연이었다. ‘잘 해야 본전’인 이 작품을 맛깔스럽게 요리하기 위해 김다미는 매서운 연습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를 불렀다. 예의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소화하는 노래에 청중들은 빨려들어갔다. 바리톤 고성현이 비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불렀다. 자유로운 해석으로 별명인 '대포'에 걸맞은 성량을 자랑했다. 두 사람의 이중창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우리 손을 맞잡고'에서 들을 수 있었다. 여유 있게 부르는 고성현의 단단한 목소리와 체를리나 황수미의 순수함이 부각됐다. 마지막에 함께 걸어가는 연기는 콘서트였지만 실제 오페라를 보는 듯 실감이 났다. 국내 최고 세계적인 가수들의 앙상블이었다.

이지수의 '아리랑 콘체르탄테' 중 '아리리오'에서 황수미는 현대적인 풍미와 절제된 애수를 실어 아름답게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의 간명한 울림이 대곡이 되어 소용돌이쳤다. 이어서 고성현은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를 불렀다. 넉넉한 가창으로 구성지게 울리는 노래에서 우리의 산과 강, 전원이 떠올랐다. 이 땅을 더욱 더 살기 좋게 하고 번영하도록 하는 일은 기업과 시민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황수미가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했다. 보통 소프라노의 노래로 이 곡을 듣다 보면 독이 터지듯 감정의 과잉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황수미는 순수함과 절절함의 경계에서 이 곡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예술적인 형상화가 더욱 뚜렷한 해석이었다. 한국적인 일련의 성악곡들이 객석 청중의 한국인의 DNA를 자극해 감동으로 이끌었다.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오케스트라를 향했다.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중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가 연주됐다. 불과 같은 열정을 뜻하는 '푸오코(fuoco)'처럼 쉼 없이 가열한 증기기관차처럼 전진하는 악장이었다. 영화 '조스의 엄습하는 사운드트랙'이 이 곡을 빼놓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 포효하는 금관, 여기서 오충근은 잔재주 없이 곡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단도직입적인 해석을 즐겨하는 연

주자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호쾌함과 동경, 의지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어느 기업의 60년 세월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는데 이만한 음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선곡이었다. 희로애락, 걱정과 서정, 대하드라마와 시가 모두 들어있는 클래식 음악은 그래서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할 인류의 문화 자산이다.

환호하는 청중 앞에서 오충근은 "동성그룹 창립 60주년을 축하한다. 멋지고 격조있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특별한 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며 바로 연주로 들어갔다. 하이드리히의 '해피버스데이' 변주곡이었다.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열 살 생일 축하곡으로 연주됐던 곡이다. 귀에 익숙한 주제가 연주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되는 작품이다. 주제 이후 탕고풍 연주와 차르다슈풍 연주로 생일 축하의 정점을 찍었다. 이후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으로 앙코르가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고성현이 무대로 걸어나와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를 불렀다. 스크린에는 메세나 기업 동성화학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객석에는 눈물을 훔치는 동성 관계자들이 보였다. 다시 한 번 음악이 60년의 세월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응결시켜주는 장면을 목도했다.

부산 지휘자 오충근, 부산의 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그들과 빼어난 솔로리스트들이 함께 부산 시민을 초청해 부산의 메세나 기업을 기린 연주회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 에스페르하지家, 메디치家, 루트비히 2세, 파울 자허, 알베르토 빌라 등 후원자들이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동성화학을 시작으로 부산에도 메세나 기업들이 예술을 위한 숭고한 후원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60년, 100년을 넘어 불멸의 길로 함께 나서는 일이다.

동시대적 미감에 담긴 춤의 고유한 역량 프렐조카쥬 무용단(Ballet Preljocaj) ‘프레스코화(La Fresque)’



◆ 무용평론가 **하영신**

지난 11월 6일, (재)부산문화회관의 초청으로 컨템포러리댄스 작가 앙졸랭 프렐조카쥬(Angelin Preljocaj)의 공연이 성사되었다. 동시대적 미감에 담지된 춤의 역량, 컨템포러리댄스의 공준이 될 만한 본작의 방도(訪都)가 이 도시의 유동과 생성을 촉발하는 각별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한다.

우선 프로그램에 기재된 단체명 ‘프렐조카쥬 발레’와 ‘프렌치 모던 발레’라는 수식에 대하여 다른 각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발레라는 양식적 틀을 지움으로써 춤에 첫 번째 장르적 위상을 부여했던 프랑스와 인접 유럽국가에서는 여전히 발레를 춤과 통용하기도 하고, 원어명이 ‘Ballet Preljocaj’이기도 하니, 단체명을 음역(音譯) 그대로 ‘프렐조카쥬 발레’로 소개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또한 프렐조카쥬의 작업이 컨템포러리댄스로 수렴되는 다양한 계열화 중 발레를 연원으로 하는 계통에 있으니 그의 작품들을 ‘모던(한) 발레’로 소개하는 것 역시 오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무용계 토양에서는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으로 구분된 오랜 학제적 실선을 따라 발레가 협의의 특정미학을 함축하기도 하거니와 작가 스스로도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자신의 춤이력을 “클래식발레로부터 시작하여 컨템포러리댄스로 전향”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니, 그의 작품과는 컨템

포러리댄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우하는 편이 좋겠다. 프렐조카쥬의 작업은 판단의 준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미학적 성취가 양가(兩價)로 갈린다. 발레라면 전위적이고 컨템포러리댄스라면 클래식할하다.

가장 최근의 방한작 <스노우 화이트(Blanche Neige)>는 춤과 춤에 연동하는 장르 모두 현대적인 감각의 지대 위에 건립되었으나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백설공주>, 19세기 초반의 고전동화였다. 무용작품의 주질료인 춤 역시 고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컨템포러리댄스는 작가주의를 정향(定向)한다. 발레, 모던댄스, 각국의 전통춤과 민속춤, 각종의 커머셜댄스 심지어 아크로바틱과 전통무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춤과 행위의 경계를 월담하여 무용가 그 자신의 언어로써의 춤을 불러세우는 일이다. 그러니 발레로부터 경계를 넓혀온 프렐조카쥬의 작업은 정녕 그가 같은 계열에서 있는 안무가들,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Jean Christophe Maillot)나 이리 킬리안(Jiri Kylian) 등등 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나아왔다고는 하나 발생상 후발(後發)했거나 계통상 주류가 아니었던 타 장르로 부터 기인(起因)하는 작가들의 탐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클래식할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클래식컬’, ‘새로움’을 맹신하는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은연 중 가치 절하된 지표(指標)인지도 모르겠다. 기실 클래식발레, 모던댄스, 포스트모던댄스, 컨템포러리댄스로 일련하는 흐름에 따르면 무용예술사는 발레에 대한 해체사에 다름 아니기도 하다. 태초의 춤은 본디 신명의 춤, 인간의 존재적 심급의 사태, 즉 의식을 담지한 ‘몸성(corporeality)’을 추어올려 우주의 기운과 하는 연동하는 일상 초과적 행위였을 것이다(본작에서 연출된 몸과 영상의 이미지는 바로 이 연동을 가시화했다). 제의와 여흥으로써 어떤 고양된 사태의 수행이었던 춤은 18세기 예술사에서 장르적 위상을 부여받기 위해 서사적 구조를 요구받았다. 주지하다시피 클래식발레의 의미재현은 역할연기, 상당 부분의 마음에 의존하며 순전한 춤의 순간들이란 의미맥락의 전개와는 동떨어진 도약과 회전으로 점철된 테크닉의 전시로 꾸러졌다. 춤작품(dance)으로 성립되기 위해 춤추기라는 행위 자체(dancing)의 본질적 측면들을 감가(減價)함으로써 비로소 춤은 최초의 무용예술장르 ‘발레’로 안착되었던 것이다.

무용예술사의 한축은 춤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컨템포러리댄스의 대부분이 서사의 고리를 풀고 몽타주적 상황과 실존적 반응으로써의 춤을 전개하는 것은 연기로 축소되었던 춤을 다시 존재론적 층위의 펼침으로 복구하고자 함이다. 피나 바우쉬(Pina Bausch)가 ‘탄츠테아터’라는 고유 양식으로 컨템포러리댄스의 서장(序章)을 열었을 때 분명 그녀의 춤(tanz)에 조합된 연극(theater)은 유기적 서사로부터 탈구한 유럽 전위극의 맥락에 속하는 현대적 연극이었다. 이는 유럽 무용예술의 전통인 발레의 유기적 극성(劇性)으로부터, 그리고 동시에 해체에 경도된 나머지 춤으로부터 무브먼트(movement)만을 박리시킨 미국 포스트모던댄스그룹의 극단적 실험으로부터 춤의 총체적 질성(質性)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많은 경우 호도되고 있지만, 그녀로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춤작품의 매체 혹은 장르 융복합적 경향은 협업하는 타 장르들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실

존적 사태를 실연하는 무용수들의 춤을 보좌하기 위해 무대라는 텅 빈 공간(space)를 구체적인 장소(place)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춤은 절대적으로 현전(現前)하는 몸의 일이었다.

생성중의 지표(地表), 아직 누층을 이루지 못한 컨템포러리의 결과물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많은 무용가들이 춤으로 성립하지 않는 행위를 전시하고 춤으로 전개하지 않는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춤의 질로 몸짓은 그 자체 살아있는 생명의 역능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한 정동(情動, affect)을 촉발한다. 동시대의 연극과 미술이 몸의 수행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템포러리의 장에서 많은 무용가들이 길을 잃는다. 생명력을 탕진하는 격렬한 움직임으로 유명했던 빔 반데케이부스(Wim Vandekeybus)의 최신작 <덧의 도시(trap town)>는 연극과 영화의 혼합물이었고 춤은 막간(幕間)에 간신히 있었다. 해체적 발레문법을 작성해왔던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는 한동안 설치미술(installation)의 지대로 멀리멀리 가 있었다(다행히 최근 발레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컨템포러리의 장(場)은 선택을 기다리는 것들, 대부분 실패하는 것들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컨템포러리댄스의 지형에서 프렐조카주의 작업은 정당지वाद도 같다. 동반하는 장르와 매체의 융복합적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동시대적 미감을 충족시켜주면서도 결코 춤의 본성, 춤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 작가. 춤에 방점을 두지 않은 관람에서 본작은 시지각(視知覺)적 감각을 자극하는 정교한 스펙터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끝에서 머리 카락 끝, 신체 말단까지 춤추는 몸의 향진(尙進)된 생명력, 그에 연동하는 영상으로부터 에너지의 정동을 느꼈다면 작품의 지극한 면모를 제대로 감각한 것이다. 클래식문법과 생성문법 사이 절묘한 지점, 프렐조카주의 춤에서 ‘클래식컬’은 그가 오랜 세월을 걸쳐 빚어온 ‘고유함’이다. 전통의 내력이 깊은 이 도시에 생성의 촉매제가 되었기를 바란다.

공연 현장의 아우라와 핑크툼이 살아있는 라이브 영상

NT-Liv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정봉석**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연극을 무대가 아닌 스크린의 영상으로 본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연극을 동영상으로 보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연극을 동영상으로 담아내는 순간 대개는 연극 고유의 아우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대표작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아니었다면, 그것도 영국 국립극단(National Theatre)에서 제작한 라이브 영상이 아니었다면 애써 보진 않았을 것이다. NT-Live란 영국 국립극단(NT)에서 기획한 연극공연 실황(Live)을 촬영한 영상을 의미한다. 2009년에 시도된 이래 전 세계 2,000여개 극장에서 상영되어 550만 이상이 관람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국립극장을 통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이제 부산문화회관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일약 유명 극작가의 반열에 오른 것은 1944년, <유리동물원>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47년에 초연되었고, 그 이듬해에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1955년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로 두 번째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대표작의 공통점은 여주인공들(로라, 블랑쉬, 매기)이 모두 미국 남부의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비련의 운명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비련의 주인공은 단연 블랑쉬이다.

하얀 숲이라는 이름의 블랑쉬 뒤부아(Blanche DuBois)가 뉴올리언스에 사는 동생 스텔라의 집으로 찾아온다. 블랑쉬는 동생의 남편 스탠리(폴란드 출신의 막노동꾼) 앞에서 고귀한 가문의 숙녀처럼 행세하지만, 스탠리는 소문을 통해 그녀의 과거 전력-동성애자였던 남편의 자살과, 이후 17세 제자와 스캔들에 휘말려 파면 당하고, 가세가 기울어져 저택이 팔려나가고, 급기야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게 된 사실들을 알게 된다. 스탠리의 친구 밋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으로서 블랑쉬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스탠리로부터 소문을 전해 듣고 블랑쉬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날카로워진 블랑쉬의 신경증세에 스탠리의 폭력적 언행이 극렬히 부딪친다. 위기의 순간 스텔라에게 산통이 오고 스탠리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위기가 일단락 되는 듯하나, 스텔라가 출산하는 동안 병원에서 돌아온 스탠리는 블랑쉬와 다시 부딪치고, 급기야 그녀를 범하고야 만다. 그 충격으로 블랑쉬는 넋을 잃어버린다. 결국 정신병원 의사에게 이끌려가면서 “당신이 누구이든, 난 언제나 낯선 이들의 친절에 의지해 살아왔어요.”라고 남기는 블랑쉬

의 마지막 대사는 “욕망(Desire)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묘지(Cemeteries)라는 이름의 전차를 갈아타고 여섯 블록을 지나 천국(Elysian Field)역에서 하차”하여 스텔라의 집으로 찾아오는 극의 첫 장면과 대비되어 비극적 패이소스(pathos)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NT-Live 공연에서는 드라마 <X파일>에서 ‘스컬리’ 역으로 유명한 질리언 앤더슨이 불량쉬 역을 맡아 신경증적 불안과 다층적 정서를 훌륭하게 연기해내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51년에 엘리자 카잔의 연출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때 불량쉬 역은 비비안 리가 연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으며, 스텔라 역의 킴 헨터와 밋치 역의 칼 말든이 각각 조연상을 수상하여 연기상을 석권할 뻔하였다. 스탠리 역에는 말론 브란도가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나, 험프리 보가트(아프리카의 여왕)에 밀려 남우주연상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엘리자 카잔과 리 스트라스버그가 공동 설립하였던 ‘액터스 스튜디오’의 출신으로서 메소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남긴다. 비록 영상으로 시청한다 하여도 NT-Live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연극이다. 연극의 특징은 붙잡을 수 없는 행위라는 데에 있다. 매일 같은 무대에서 같은 연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완전히 같은 연극을 재현해낼 수는 없다. 우선 시간이 흐르고, 그런 만큼 배우의 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관객들이 빚어내는 분위기도, 무대의 조건들도 달라져서 그 사이의 교감으로 생성되는 공연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객의 눈앞에서 딱 한번만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예술, 연극의 매력은 거기에 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 ‘유일무이한 현전’을 ‘아우라(Aura)’라고 불렀다.

아우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산들바람의 여신이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조개를 탄 비너스를 물으로 불어내는데, 그 제피로스를 안고 있는 여신이 바로 아우라이다. 이 미풍의 여신처럼 공연의 순간도 바람처럼 사라져가기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벤야민은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5)에서 역설적으로 것처럼

너무 먼 것이 바람이 불어오듯 아주 가까이 나타나는 단 한번의 순간을 ‘예술작품의 아우라’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 아우라는 원본 작품에만 현존하기에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복제예술에서는 ‘아우라의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벤야민은 변증법적 역설을 통해 기계복제 시대에 카메라가 견지하는 태도를 ‘시각의 무의식적 공간으로의 확장’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카메라는 배우의 인격을 소외시키는 ‘억압적 기계장치’이면서, 한편으로는 무대 너머에 존재하는 비논리적 감각을 지각하는 ‘전위적 기계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나아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밝은 방」(1980)에서 ‘대상 속에 필연적으로 은닉된 비논리적 감각’이자 ‘장면을 떠나 관객을 꿰뚫는 화살과 같은 지시(point)’를 ‘푹크툼(punctum)’이라 이름 하면서, 이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카메라의 사명이라 하였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접한 영국 국립극장의 라이브 영상에는 놀랍게도 공연 현장의 아우라와 푹크툼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런던의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영 빅 극장(Young Vic Theatre)에서 베네딕트 앤드루스(Benedict Andrews)의 연출로 공연되었는데, NT-Live의 입체적 영상을 위해 객석을 이동시켜 무대를 원형극장식으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회전하는 무대와 함께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반응까지 다각도로 포착해내고, 또 그것을 정교하게 편집함으로써 마치 공연의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현대연극의 분향으로 불리는 런던 템스강변의 극장가는 실로 ‘너무 먼 것’이어서 평생 한 번 가보기가 어려운데, 불현듯 불어오는 미풍의 여신 아우라처럼, NT-Live의 영상 속에 포착된 그 ‘유일무이한 현전’을 부산문화회관의 객석에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시즌은 <프랑켄슈타인>(10월 6일)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1월 10일)로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헤다 가블라>(2월 15일)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2월 29일)가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는 체크해두시길.

부산문화회관

**(사)한국음악협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중국의 밤’**

일 시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사)한국음악협회 02-2655-3060~4



지난 10월과 11일 서울에서 열렸던 2019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중국의 밤’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한국음악협회가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국제음악제는 올해 ‘한국의 밤’, ‘중국의 밤’

등 두차례로 나누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중국의 밤’에서는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팡카팡이 이끄는 소주민족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소주민족관현악단 아트 디렉티자 유명한 열후 연주자인 주 창야오,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연화의 협연으로 최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함, 그리고 폭발적인 열정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는 백혜선은 그가 지난 해부터 진행해온 ‘2018-2020 시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일환으로 데뷔

무대에서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을 비롯해 소나타 제31번, 제32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백혜선은 부산 클래식계의 대모(代母)로 지난해 12월 타계한 부산아트메니지먼트 故 이명아 대표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제4회 부산아너스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지난 2016년 플루트 선율을 사랑하는 전공자 및 비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네 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음악감독 및 음악부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옥경, 조진학의 지도 아래 음악적 실력을 쌓아온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201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 음악감독, 지휘/정옥경
- 탕고 댄서/정연근, 허필너
- 솔로협연/김경옥
- 트리오험연/김진아, 주서현, 김수정
- 퍼쿠션/박아론
- 피아노/권순정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12월 4일 수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인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심야음악회’.

현대음악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현대음악의 복잡하면서도 지나치게 세련된 양식에 반발하여 19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미니멀리즘(Minimalism) 음악’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최수열, 부지휘자 이민형의 지휘로 미니멀리즘 음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필립 글래스, 존 애덤스, 테리 라일리 등 세 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준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이민형(부지휘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

일 시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사회, 소프라노 김성은, 박현주, 왕기현, 테너 김충희, 허동권, 바리톤 박대용, 최현욱이 출연, 운명적 사랑을 노래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정유정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12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정유정 010-9441-5014



현재 리더스플루트오케스트라 악장, 영도유스오케스트라 트레이너, IF플루트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정유정 독주회.

경성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재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정유정은 이번 무대에서 라이네케, 오네게르, 쇼커, 이베르, 드보르자크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라이네케/발라드 작품 228
- A. 오네게르/Dance de la chevre
- G. 쇼커/Regrets and Resolutions 등
- 플루트/유혜성
- 피아노/정보근

김현경 피아노 반주 리사이틀

일 시 12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YK 뮤직 아카데미 010-9356-1834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곡·오페라 코치 김현경을 통해 전문 예술가곡과 오페라 반주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무대.

최근 들어 반주는 음악대학에서 반주학과가 신설되는 등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예술적 동반자로서 전문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반주와 예술가곡·오페라 코치의 전문성을 재조명해보는 자리로,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지광윤, 베이스바리톤 양재원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 해설/박주희 ● 소프라노/박현진
- 바리톤/지광윤 ● 베이스바리톤/양재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 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발레의 걸작 ‘호두까기 인형’.

2015년 이후 4년만에 부산을 찾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볼쇼이발레단을 이끌었던 발레계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

비치의 안무로 탄생된 볼쇼이발레단 버전으로,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난도 발레연출과 탁월한 해석을 더하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발레로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10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일 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엄남이는 그동안 아홉 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오페라 ‘마술피리’(밤의 여왕),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금정수요음악회, PBC 초청독창회, 그랜드오페라단 갈라콘서트, 한국가곡의 밤, YWCA 환경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1부 무대에서는 R. 슈트라우스 모음곡과 벨리니의 곡으로 꾸며지며, 2부에서는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외에도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단원 안재형과의 듀엣무대를 만날 수 있다.

헨델의 메시아

일 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아트락 256-6300, 010-2672-6152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마련하는 송년무대.

종교음악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위대한 음악유산으로 손꼽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연말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레퍼토리로, 하이

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힌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진영이 지휘하는 부민교회 관현악단, 연합찬양대의 연주,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강현수, 바리톤 제상철이 솔로리스트로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사)더 솔로이스츠 아마추어 카메라타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사)더 솔로이스츠 010-8503-0000



지난 2016년 ‘도전, 특권, 책임’이라는 3가지 모토를 내걸고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연주단체인 (사)더 솔로이스츠 아마추어 카메라타의 무대.

‘도전, 특권, 책임’은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클래식 음악이 제공하는 풍성한 삶의 특권을 누리며, 프로 연주자 못지 않는 열정과 완성도를 추구하는 책임감으로 활동하자는 의미로, 정기 연습과 레슨, 정기연주회를 통해 아마추어 연주자의 저변 확대에 노력해오고 있다.

- 지휘/정성훈 ● 협연/김서윤(비올라)

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콘체르토스 Concertos

일 시 12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일세는 현재 부산시립교

향악단 첼로 수석이자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된 앙상블인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과 협연으로 보케리니, 하이든, 슈만의 첼로 협주곡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를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공감共感

일 시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단체예약에 한함)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2019 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2019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공감'. 이번 무대는 매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우수한 춤 레퍼토리를 엄선하여 선보이는 무대로, 청소년들에게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전해준다.

올해 무대에서는 전통 궁중무용과 신무용인 화관무를 새롭게 재구성한 '천하태평지무'를 비롯해 한량춤, 무당춤, 소고춤과 '사랑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 창작무를 선보인다.

- 안무, 구성/서정숙(훈련지도자)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일 시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구현진 010-2676-7884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무대에서 특유의 깊은 감성을 보여주는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베르디 국립음악원, G. B. Viotti(Vercelli - Italia) 아카데미를 졸업한 구현진은 이탈리아 유학 시절 Giovanni Talenti 콩쿠르 3위, Città di Racconigi 국제콩쿠르 3위, Italien Festival 국제콩쿠르 입상 등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성악(학)회와 이태리음악연구회, 국제성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현진은 경희대학교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오선영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사랑나눔 특별공연
공감共感

일 시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30 대극장
입장료 무료(단체초청)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시내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초청해 함께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사랑나눔 특별공연 '공감'.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무용단 김재철 운영위원이 매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송년무대로, 후원자들이 준비한 선물과 공연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특별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공연 뒷날인 12일에는 공연장에 직접 오기 힘든 혜남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 안무, 구성/서정숙(훈련지도자)

김하람 비올라 독주회
Für Viola

일 시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김하람 010-9828-7511



겨울의 차가움을 비올라의 따뜻한 선율로 덮어줄 비올리스트 김하람의 무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김하람은 현재 UKO(United Korean Orchestra)와 Galland 앙상블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레거, 칼리보다, 브루흐, 클라크 등 비올라의 음색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민선
- 바이올린/이은실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_그 섬, 별이 빛나는 밤에

일 시 12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는 셰익스피어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쓰여진 작품으로, 베네치아의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약인 이아고에게 속아넘어가 선량하고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해하게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40대 젊은 연출가 중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출가이자 배우인 양지웅이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낸 새로운 '오델로'를 선보인다.

- 객원연출/양지웅

제4회 헤븐싱어즈 정기공연

일 시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아트락 010-5468-4658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음악적 깊이와 해석을 같이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들로 결성된 헤븐싱어즈의 4번째 정기공연.

지난 2014년 창단한 헤븐싱어즈는 그동안 남성미 넘치는 파워 보이즈의 감미로운 음색과 품격 높은 퍼포먼스,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 뮤지컬 넘버, POP & K-P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오면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대중가곡인 칸초네와 아트팝 형식의 한국가곡, 그리고 귀에 익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헤븐싱어즈 특유의 열정적인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Winter Musical Concert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9만9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부산일보 문화사업국 461-4437



뮤지컬계 최정상 주역배우 김소현, 풍부한 보이스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손준호 부부의 완벽한 하모니로 꾸며지는 2019 Winter Musical Concert.

지휘자 서희태가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뮤지컬 스타 부부 김소현, 손준호 외에도 뛰어난 가창력과 진중한 연기력으로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이지훈이 함께 출연,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뮤지컬 넘버를 통해 '사랑'과 '운명', 그리고 '인생'을 노래한 감동 스토리를 들려준다.

음반출반 기념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가독창회
영혼의 울림으로

일 시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리즈벨칸토다솜 010-5343-0682



현재 가곡사랑 김해 대표, 당감바비의성모성당 지휘자, 글로벳어린 이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가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Parma 국립 음악원 성악과, 이태리 Cagli 시립극장 국제오페라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한 이지영은 이태리 Ravenna 콩쿠르 1등, Racconigi 국제콩쿠르 2등, 서울월드심포니콩쿠르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성가음반 출반을 기념해 이야기가 있는 성가독창회로 꾸며진다.

- 특별출연/테너 이철성 ● 우정출연/칸뎀띠중창단
- 반주/다습피아노트리오(피아노 김경미, 바이올린 금성빈, 첼로 김혜지)

김희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 2015년 영국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여한 피아니스트 김희재 독주회. '청중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하는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들으며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진출한 김희재는 리즈

국제콩쿠르뿐만 아니라 산마리노공화국 국제콩쿠르, 스페인 카날스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을 통해 열정적이면서도 꾸밈없는 음악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부산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희재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KNN방송교향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4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창단된 KNN방송교향악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창단된 후 매년 경남을 순회하며 대중에 클래식을 전하는 '더 클래식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의 문화단체와 기업이 주최하는 수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해 음악감독이자 악장인 양영아를 중심으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로 재정비된 후 지역 대표 오케스트라로 대중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샤를 뒤투와가 발탁한 인재이자 국제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

2019 마린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영호남의 울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일 시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마린뮤즈콰이어 010-5503-9692



지난 2007년 부산대학교 합창단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뮤즈 콘서트콰이어와 2011년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마린콰이어가 2017년 연합체로 통합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린 마린뮤즈콰이어의 무대.

'영호남의 울림'을 전해줄 전주 달빛하모니합창단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노래할 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달빛하모니합창단(지휘/박영재, 피아노/윤성애), 마린뮤즈콰이어(지휘/김태호, 피아노/최은혜), 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태호, 피아노/오은영)

은 김광현이 지휘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선택한 최초의 클래식 연주자로 클래식과 재즈, K-Pop을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베이스 황호규, 드럼주자 윤재현으로 구성된 문정재 트리오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리엔탈풍의 경쾌함을 선사하는 아르투르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을 시작으로 문정재 트리오가 끌로드 볼링의 '오케스트라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으로 흥겨운 재즈 무대를 선사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다가올 2020년, 더 나은 세상으로의 희망을 담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마르케스/단손 제2번
- 끌로드 볼링/오케스트라와 재즈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 음악감독 겸 악장/양영아
- 지휘/김광현
- 협연/문정재 재즈트리오(피아노 문정재, 베이스 황호규, 드럼 윤재현)

부산문화회관

제8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2019 우리 반이 최고의 합창단

일 시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송인문화재단 010-8496-0691



부산지역의 중고등학교 학급대학 합창경연대회로 매년 즐거운 합창축제를 열고 있는 제8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지난 2011년 노엘합창단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한국청소년합창축제는 올해 거성중학교(1학년 6반)를 비롯해 부산의 12개 학급이 참가한다.

참가학급

거성중(1-6반), 금정중(2-5반), 남천중(1-9반), 두송중(2-2반), 부산여중(2-2반), 양덕여중(3-3반), 이사벨중(3-6반), 해운대여중(1-8반), 부산진여상(2-7반), 브니엘예고(1-1반), 장안제일고(1-3반), 정관고(1-6반)

강남길 피아노 리사이틀
그 겨울의 차이코프스키

일 시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큰 스케일 속에서 안정된 연주와 명확한 곡 해석을 하는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으며 그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펼쳐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남길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강남길은 지난 2013년에는 부산의 음악발전을 주도한 공로로 ‘부산음악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신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언론과 청중의 찬사를 받아온 강남길은 이번 무대에서 ‘영상’ ‘로망스’ ‘사계’ 등 차이콥스키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2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오페라&뮤지컬 하이라이트

일 시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송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9 송년음악회 ‘오페라&뮤지컬 하이라이트’.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해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윤서준, 바리톤 박요섭, 색소포니스트 최정섭의 협연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뮤지컬 ‘위키드’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애니메이션 ‘알라딘’ OST 등 주옥같은 곡들로 관객과 만난다.

2019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부산일보 461-4296
부산솔리스트앙상블 010-2400-5271



부산, 경남지역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0여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9년 무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한 무대에 서온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구천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 합창곡, 창작 합창곡은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지휘/구천 ● 피아노/이소영, 안준희

제4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함께 춤을 춥시다

일 시 12월 17일-18일 화-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 852-6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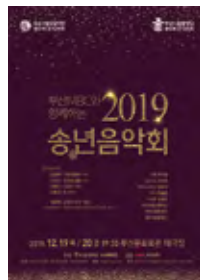


지난 2016년 결성된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4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7일 오록도무용단, 춤패너울, 주레디담무용단, 동백무용단(예담), 명미단(鳴美團), 춤나래, 피닉스, 남성주 매화무용단, 사하 미리내무용단, 아현무용단, 분다리, 우리춤사랑연구회, 매화무용단, 청마루무용단, 춤세상
18일 아리에솔봉사단, 춤사랑무용단, 가향, 실버벨사랑춤무용단, 날음새무용단, 을숙도 두루미, 알싸개 또마 플라멩코, 디담전통무용단, 춤소리봉사예술단, 한국춤회 연향(蓮響), 춤 비상, 원흥무용단, 예송무용단, 늘무용단, 부산해월무용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11~6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사랑받아온 ‘2019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올해는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정호윤, 바리톤 강형규가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제1222회 MBC목요음악회
3테너 앙상블 클라보체**

일 시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 네트워크 760-1494



2019년을 마무리하며 송년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3테너 앙상블 클라보체와 소프라노 김민성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너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들려준다.

지난 2016년 테너 이승우, 우원석, 김지현 등 부산 출신의 테너 3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클라보체는 관객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결성된 전문연주단체로, 클래식음악뿐 아니라 뮤지컬,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 피아노/이영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일 시 12월 20일(금)-25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12/25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5% 할인)
문의 (주)피엠씨퍼덕션 02-721-7644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

지난 1997년 10월 초연무대를 가진 후 현재까지 전 세계 58개국 318개 도시, 관객 1,414만명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난타'는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주방기구를 이용해 펼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몸놀림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M&M 성악연구회 기획공연
2019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와 그의 제자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며 사제지간의 사랑을 나누는 송년음악회. 기존 성악가들과 예비 성악가,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선곡, 독창과 이중창으로 무대를 꾸민다.

- 소프라노/신정순, 김민주, 김주연, 송세영, 고가현, 조영옥, 장성숙, 이수복
- 테너/조형근
- 바리톤/고봉수, 조경남
- 피아노/김아영, 강수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The Gift of Christmas**

일 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온 가족을 위한 음악선물 'The Gift of Christmas'.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 엘렉톤 연주자 김희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겨울을 주제로 한 합창곡과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 지휘/김수현(수석지휘자)
- 출연/김연정(바이올린), 김희은(엘렉톤),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
- 나레이션/연극배우 박찬영

강수이 비올라 리사이틀

일 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깊이 있는 해석과 탄탄한 연주가 돋보이는 비올리스트 강수이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미,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과정을 마친 강수이는 국내외의 유수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

으며,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솔리스트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음악성을 보이며 비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쌓았다.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강수이는 현재 무지카비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피아노/심하정
- 기타/김병현

**스탠딩에그 전국투어 콘서트
Poetic Tour**

일 시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7만7천원
문의 혼컴퍼니 031-924-1213



지난 2010년 결성된 후 어쿠스틱한 폭넓은 장르적 스펙트럼과 보편적이면서도 편안한 멜로디로 사랑받고 있는 스탠딩에그 부산콘서트. 결성 당시 에그1호, 에그2호, 에그3호 등 다소 독특한 멤버 이름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던

스탠딩에그는 멤버는 주로 작사, 작곡을 하며 노래는 객원보컬이 주로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지난 2010 서울재즈페스티벌의 특별 공연을 통해 처음 무대에 올랐으며, 2014년 제6회 멜론뮤직어워드 뮤직스타일상 인디부문, 2015년 제7회 멜론뮤직어워드 인디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해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아름다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을 겸비한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해리 독주회. 경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김해리는 국제적인 마스터클래스에 수차례 참여, 연주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넓혀왔으며 그동안 미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솔로 및 듀오, 실내악 등 다수 무대에 서면서 청중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김해리는 현재 동서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리스트협회 서울경기지부 이사로 활동하며 피아노 음악 연구 및 음악인들과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부산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일 시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지난 1990년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출발한 후 2017년부터 성악 전공자들의 전문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의 무대. 전상철 지휘자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는 매년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사랑의 나눔 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명곡 '메시아'를 들려준다.

18세기 실내악: 현악합주

일 시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윤예술기획 010-6516-9838



부산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연주 단체인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의 무대. 지난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다. 플루티스트이자 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관현악 지휘를 전공하고 있는 지휘자 김윤희의 지휘, 플루트 협연으로 모차르트, 메르카단테, 차이콥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음악회 3 Odyssey(긴여정)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며 우리의 소리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긴여정)'.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세 번째 무대로, 전 정동극장 음악 자문위원을 역임한 지휘자 진성수가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깊은 해석력으로 호평받는 진성수 지휘자는 중앙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 협연/김경수(태평소), 송귀철(설장구)

전병하 반주 리사이틀 갈라오페라 '리골레토'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전병하 010-8787-6008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반주 및 음악코치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전병하의 무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이, 이탈리아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오페라 보컬 코치과정),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합창지휘)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전병하는 그동안 마산시립국악단, 경희대학교 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음악춘추 신인 데뷔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최요섭, 바리톤 윤오건이 함께 출연,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갈라무대로 꾸민다.

테너 엄정행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너 엄정행이 2019년을 보내며 마련하는 송년무대. 경희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다수 무대를 통해 국민 테너로 사랑받아 온 엄정행은 지난 2008년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후 고향인 양산으로 내려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다 올해 2월, 울산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노래하는 성악가 엄정행이 아닌 소통하며 이야기 나누는 친구 엄정행으로 관객과 만난다.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프레스티지쇼(엘일루전) 모던 파우스트

일 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의 역량 있는 신진 예술인들의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함으로써 'Made in Busan' 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신인스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미디어×일루전 융합 각색극인 '모던 파우스트'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환상, 트릭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무대로, 모호한 경계선에 놓인 인간을 두고 내기를 하는 신과 메피스토, 그리고 내기의 중심에 선 삶에 대한 지루함으로 가득찬 현대인의 표본 파우스트를 통해 존재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 연출/임태홍, 염인화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매직큐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일 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5: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조선시대 부산 최초의 서커스를 재연하는 매직큐의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얼르(유랑예인패 사이에 전승하는 마술의 고유한 용어)'의 역사를 찾아 그 시작을 되새길 수 있는 무대로 버나(지금의 저글링), 델미('꼭두각시놀음'이라는 전통극), 덧뵈기(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 풍물(사물놀이), 그리고 얼르(현재의 마술)를 가지고 조선 최초의 서커스를 무대에 재연한다. 부남사당은 부산의 남자들로 구성된 광대라는 뜻.

- 연출/박준영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운악(雲樂)_인력거, 오라질 년, 설령탕

일 시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을 전통 연희양식과 접목시켜 새롭게 풀어낸 '운악'은 행운과 불행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간사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삶의 이면에 감춰진 모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의 순간,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고민한다.

'운악'은 지난 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연출/최용혁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이팝무용단 똥:방 안의 꼬끼리

일 시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한국춤의 원형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동시대 삶이 담긴 춤을 지향하고 있는 이팝무용단의 '똥:방 안의 꼬끼리'는 채워지면 비워야 한다는 단순한 이치를 망각하고 욕망만을 품은 채 순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한국창작무용과 설치미술, 영상,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을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각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따로, 또 같이 목소리를 내며 감정의 응어리를 배설한다.

- 안무/박연정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프로젝트 앙상블 S4 '선물'

일 시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피아니스트 박유미, 권준, 박정희, 이윤지 등 서울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S4의 소년무대. '네 명에서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뜻의 프로젝트 앙상블 S4는 지난 11월에 열렸던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에 참여해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오로지 피아노 한 대로 여러 형태의 앙상블 무대를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와 슈베르트, 하차투리안, 차이콥스키의 곡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전한다.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하이 클래식 아트 컴퍼니
오페라 살인-리골레토

일 시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클래식 무대를 독창적인 연출로 보다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결성한 연주 기획 전문단체인 하이 클래식 아트 컴퍼니가 선보이는 스릴러 음악극 '오페라 살인-리골레토'.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그 배역에 몰입하여 완전히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한다. '만약 오페라 가수가 메소드 연기에 몰두하게 된다면'이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제작된 '오페라 살인'은 연극과 음악의 융합이 빛어내는 놓칠 수 없는 긴장과 충격적인 결말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연출/최수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제야음악회

일 시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9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20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2019 제야음악회'.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여자경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피아니스트 이진상, 소프라노 김신혜,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종이 출연, 2019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로비음악회/박진성 Group with 이주미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진실의 변주

일 시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지난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연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창단한 한국춤프로젝트 가마의 '진실의 변주'.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왜곡되고 자극적인 거짓 정보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한국형 컨템포러리 댄스로, 부산의 무형문화재인 지산뿔기의 형식을 차용하여 진실 같은 거짓과 거짓 같은 진실 사이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혼돈을 한국적 정서로 그려냈다.

- 연출/이용진, 안무/한지은

연극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일 시 12월 3일-5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5천원
문의 청춘나비 070-8241-2560



1918년, 조선인 웅변대회에 참여한 최우식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종로경찰서 경부였던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출판사에 취직하게 되고 그 곳에서 '뜨거운 피'라는 독립운동 모임을 결성한다. 어느 날 총독부 과장 모모세가 새로이 사장으로 오면서 독립운동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고 설상가상 모임의 일원 중에는 독립선언문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지난 2017년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작품 속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극단 네이호우의 신작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 연출/차승호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극단 오오씨어터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일 시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소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판소리 '수궁가'에서 상상해온 이미지를 2019년 현재의 무대 위에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한국 전래 동화를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무대로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 무대를 가득 채울 화려한 안무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 앞바다에 사는 남해 용왕 광리왕은 연일 계속되던 술자리에 술병이 나고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의원의 이야기에 토끼 잡으러 갈 영업사원을 선출하는데...

- 연출/오영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새끼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30-5200



춤으로 그려낸 성장동화,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의 렉처퍼포먼스 '미운 오리새끼'.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미운 오리새끼'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명의 동화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첩시켜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불신과 세대간의 간극을 좁히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한 춤의 시선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렉처퍼포먼스 형식으로 풀어냈다.

- 안무/이태상(예술감독)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배우창고 한 여름 밤의 꿈

일 시 12월 30일-31일 월-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낭만희극이다.

배우창고의 '한 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와 작품의 배경을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이 아닌 빛과 결합

한 미술과 무대장치, 시대의상-소품 등을 통해 낮과 밤, 현실과 환상, 마을과 숲, 인간과 요정의 세계로 양분된 이미지를 연극적 움직임과 융합적인 음악으로 병치하여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판타지 가득한 가족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연출/김가영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119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와 함께하는 선사인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선사인오케스트라 010-5660-3919



지난 2015년 9월 창단된 후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행복과 감정을 소통해온 선사인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119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고 박서진(테너, 부산예고 1년), 서보빈(바이올린, 오륙도초등학교 3학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 '발레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제72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불멸의 베토벤

일 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사전 예매시 3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온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콘서트 2019년 마지막 무대.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불멸의 베토벤'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콘서트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꼬레아오페라단 지휘자로 있는 오창록이 지휘하고 프랑스 니스 실내악음악 페스티벌 창립자이자 예술감독,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니콜라 브랑기에의 협연, United Korean Orchestra의 연주로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을 시작으로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마련하는 이색콘서트 '짜장콘서트'.

2019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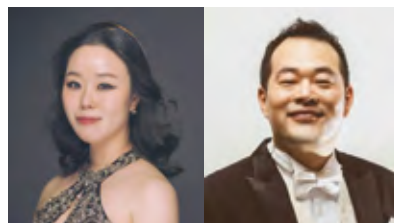
일 시 12월 4일-5일 수-목요일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총 631-1377, www.bsart.or.kr



첫날인 4일에는 겨울밤을 수놓을 아름다운 선율의 우리 소리를 들려주는 '겨울밤 수놓은 아리랑'이, 5일에는 클래식 연주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Sweet moment in December'가 펼쳐진다.
4일 출연/이중희, 김은경(대금), 정주아(피리), 한지우(가야금), 이승호(아쟁), 류병기(장구), 송민재(쟁과리), 김창돈(바리톤)
5일 출연/김미정, 이경은, 김해욱(피아노), 임성규, 조윤환, 김준연(테너), 정은미(소프라노), 부산현악4중주단, GOOD양상블, 호산가야금양상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제12회 짜장콘서트

일 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마련하는 이색콘서트 '짜장콘서트'.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12월 4일(수), 11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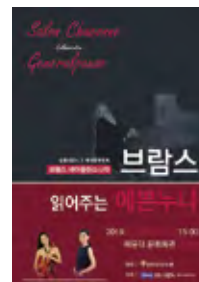


4일(709회)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제5회 정기연주회
미국 신시내티음악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로 결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으로의 여정'이라는 부제로 어네스트 블로흐, 아서 푸트, 조지 거쉰, 폴 신펠드 등 미국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11일(710회) 국악꽃이 '피네'
민요를 재편곡한 피네의 퓨전 국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

브람스 읽어주는 예쁜 누나

일 시 12월 8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도서 포함시 2만5천원)
문의 (주)사콘즈 746-2018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가 어우러지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 '브람스 읽어주는 예쁜 누나'.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카페인 '살롱 사콘즈'와 '게네랄파우제'의 콜라보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보영과 게네랄파우제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김문영이 가장 아름다운 실내악이라 평가 받는, 19세기 최고의 로맨티스트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정희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예술기획 0505-700-979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정희경 독주회. 정희경은 그동안 뉴욕 주립대 주최 런던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독일 레클링하우젠 데뷔연주회, J.S. Bach의 밤 연주(독일)를 비롯해 독주회 및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협연, 독우회, 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듀오협회, 부산예술아카데미 정기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정희경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제8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



지난 2013년, 하모니카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강사를 육성하는 한편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하모니카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의 8번째 정기연주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12월을 맞아 송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곡을 들려준다.

- 총감독/박기국
트레몰로 독주/김성수, 김익환, 심세영
다이아토닉 독주/반정란, 이성숙
크로태틱 독주/장무연

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브람스 트리오 전곡 기획연주 시리즈 III

일 시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트리오 890-1318, 010-3325-8729



세대를 이어 '국내 최강수 트리오'라는 뜻깊은 전통을 세우고 있는 부산피아노트리오가 2019년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브람스 트리오 전곡 기획연주 시리즈' 세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제갈삼, 첼리스트 배종규, 바이올리니스트 김진문 선생에 이어 현재 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학교 교수), 권준(피아노, 고신대학교 교수), 이일세(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트리오는 올해 기획연주 시리즈 마지막 무대에서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의 초기 작품과 말기 작품인 1, 3번을 들려준다.

을숙도 해피콘서트

일 시 12월 10일-13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을숙도 해피콘서트 2019년 무대.

10일 (화) 어디선가 들어본 클래식 춤곡 '리베르 탕고(아르헨티나)' '강강(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춤곡과 차이콥스키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어디선가 들어본 클래식 춤곡'.

- 연주/Edel String Quartet

11일(수) Adieu 2019 송년음악회 'My favorite Song'

테너 이승우, 우원석, 양승엽, 소프라노 왕기현, 김민성 등 5명의 성악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 및 팝송, 칸초네 등 누구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오 솔레미오(O sole mio),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Time to say goodbye 등 수곡

12일(목) 6 cello's story

6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트라움 첼로앙상블의 무대로, 클래식 명곡 및 영화음악 OST 등을 통해 첼로의 중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
비제/'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제1번
프랑크/생명의 양식
엔니오 모리코네/러브 어페어 등 수곡

13일(금) 詩와 歌曲

부산예술가곡연구회를 초청, 슈베르트의 '송어', 토스티의 '슬픔' 등 세계 명가곡과 장일남의 '기다리는 마음', 변훈의 '명태' 등 사랑받는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폴리포니기타듀오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폴리포니기타듀오 010-5198-0074



지난 2005년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 정기연주회. 폴리포니기타듀오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기타 이중주팀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6년 세 차례 통영 율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해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첫 음반 'Song of Polyphony'를 발매한데 이어 2015년에는 독일 부퍼탈 Herz Jesu 성당에서 녹음한 두 번째 음반 'Song of Polyphony' 2집 'ROMANCE'를 발매한 바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송년콘서트 팝페라 HUE의 Merry Christmas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2만원, R석 1만원, S석 5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테너 류무룡과 소프라노 김지현으로 구성된 팝페라 듀엣 '휴(HUE)'의 송년무대 '메리 크리스마스'. '휴(HUE)'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결성된 후 그동안 콘서트 위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휴(HUE)만의 창작 팝페라곡들을 발표해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보다는 일본에서 더욱 많이 알려지면서 팝페라계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휴(HUE)'는 이번 무대에서 파워풀하면서 감미롭고 때론 유쾌한 휴(HUE)만이 줄 수 있는 재치있는 진행과 다양한 무대로 진한 감동과 유쾌한 재미를 선사한다.

정준수 첼로 독주회

일 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허우정 010-9105-2688



현재 서울신포니에타 초빙수석, 대구 울림 챔버리더, 전문법인 Die Cellisten, Solisten Ensemble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 독주회. 연세대학교 관현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도독,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대학원을 수료한 정준수는 2004년 귀국 후 창원, 대전, 포항, 울산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과 대구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 대구 수성 필 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피아노, 챔블로/우아영

2019 송년재즈페스티벌

일 시 12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5일 일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12일 공연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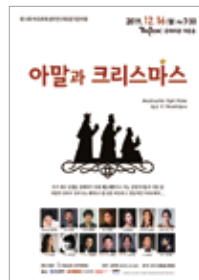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며 마련하는 2019 송년재즈페스티벌.

12일(목) 오후 7:30 시네마 재즈 스케이프 -임보라 콰르텟, 정기고 퀸텟
아름다운 멜로디와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연주의 피아니스트 임보라와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정기고가 들려주는 시네마 재즈의 향연. 당대 최고의 재즈 뮤지션 듀크 엘링턴의 감각적인 재즈 선율이 영화 전반에 흘러나오는 '무드 인디고', 청춘의 음색을 지닌 뮤지션 쳇 베이커의 삶을 그린 '본 투 비 블루'의 OST를 감각적인 재즈선율로 들려준다.

13일(금) 오후 7:30 나윤선 이머전 투어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지속하며 아시아 아티

제14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아말과 크리스마스

일 시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부산을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성악, 반주자들로 구성된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14번째 정기연주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지난 2012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연

구단체로 성장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1951년 TV 오페라로 제작되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되면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오페라로 손꼽히는 카를로 메노티의 '아말과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

- 예술감독/정태미 ● 연출/오세준
- 출연/이지은, 박소연, 양승연, 시영민, 윤오건, 강태영



스트로서 거의 유일하게 유럽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보컬리스트 나윤선이 2년만에 갖는 국내 무대. 나윤선의 탁월한 음성이 느껴지는 'In My Heart', 'Mystic River' 등 자작곡을 비롯해 조지 해리슨의 'Isn't It a Pity',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 등 기존 유명곡을 그만의 음악적 어법으로 선사한다.

14일(토) 오후 3:00, 7:30 봄여름가을겨울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
지난 1986년故 김현식의 빅밴드로 결성된 봄여름가을겨울은 기타리스트 김종진과 드러머故 전태관을 주 멤버로 활동한 밴드로, 지난해 멤버 전태관이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김종진은 마지막까지 최고의 뮤지션이었던 전태관을 기억하기 위해 여전히 '봄여름가을겨울'의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일) 오후 7:30 웅산-매혹의 재즈파티 2019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쿨한 소울 창법과 영혼을 적시는 깊은 울림을 가진 웅산의 무대.

금정문화회관 송년콘서트 II 비발디 '사계'가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일 시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지난 1988년 창단된 후 실내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현악챔버실내악단 서울튜티앙상블(예술감독 김지현) 초청 무대로 마련되는 금정문화회관 송년콘서트 두 번째 무대.

1부에서는 서울튜티앙상블 악장이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주며, 2부에서는 부산 출신의 부부 성악가 소프라노 정희경과 바리톤 김준동이 크리스마스와 송년에 어울리는 유쾌한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특히 명 연기자인 연극배우 남명렬이 작곡가 비발디가 대본으로 삼은 '소네트'를 낭독한다.

기타공연장

양상을 더날개 제4회 정기연주회
더날개, 음악을 품다

일 시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양상을 더날개 010-2323-6589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전문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단된 발달장애인 양상을 '더날개'의 4번째 정기 연주회.

양상을 더날개는 지난 2016년 우리은행 사회공헌 지원사업 '투게더 우리 지원제'에 선정된 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백재진 교수와의 앙상블 무대와 작곡가 정화영의 '사계-북향, 부산', 이상준의 '황령산 야경' 등 두 작곡가의 위촉곡이 초연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커피 제공)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짝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해온 11시 브런치 콘서트.

올해 '멈추면 들리는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예술감독 김이곤의 감성 여행으로 진행해온 2019 브런치 콘서트 마지막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김이곤과 메조소프라노 조애록, 바리톤 박홍우가 출연, '세기의 로맨스, 세기의 스캔들'로 기억되는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사랑을 그들의 대표작을 통해 조명해본다.

- 피아노/민유승

제8회 허희성의 가야금
節世佳絃(절세가현)

일 시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허희성 010-8951-5002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주자 허희성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를 취득한 허희성은 그동안 7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김계옥 25현가야금합주단 연변연주회, 영남가야금앙상블 창단연주회 등에 출연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엄정하고 정제된 음악미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정악 중에서도 느림과 절제된 선율의 대표적인 원형인 가곡을 들려준다.

- 대금/신희재
- 장구/송강수

클라리넷 듀오와 함께하는
뷔페콘서트

일 시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배아름 010-4817-9645



클라리넷리스트 배현우, 방유정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클라리넷 듀오와 함께하는 뷔페 콘서트'.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은 클라리넷 듀오가 들려주는 수준 높은 연주와 더불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개념 공연으로, 정해진 곡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는 일반적인 공연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 뷔페처럼 클래식, 영화 OST, 드라마 삽입곡, 가요, 팝송, 오페라 아리아 및 뮤지컬 넘버, 캐롤 등 각 장르별 다양한 곡들 중 관객들이 선택한 곡을 들려준다.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63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6:00
농심호텔 허심청 2층 대청홀
입장료 전석 5만원(후원회원 동반 1인까지 4만원, 전화예약)
문의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38-4291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매년 40여회 이상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해온 (사)부산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현재는 30개의 기업과 400명 이상의 개인 후원으로 부산시민의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디너 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는 즐거움을 경험한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M&M 성악연구회 기획공연 Series 1
작곡가 이수인&김효근
한국가곡의 밤

일 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잊혀져가는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부산 지역의 성악가들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무대 '한국가곡의 밤' 첫 번째 무대.

가곡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동요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앞으로' 등 100여곡의 가곡과 500여곡의 동요를 작곡한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이수인과 우리가곡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작곡가 김효근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소프라노/신정순, 왕기현
- 메조소프라노/이민정, 손혜은
- 테너/이철성, 박재화, 장지현
- 바리톤/고봉수
- 피아노/김효성

녹턴 스트링 콰르텟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녹턴 스트링 콰르텟 010-4032-1679



지난 2017년 전공자와 아마추어의 친목을 위해 결성된 녹턴 스트링 콰르텟의 5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통해 여러 시대의 다양한 현악4중주 작품을 소개해온 녹턴 스트링 콰르텟은 특히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김대영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현악4중주 반주로 들려준다.

● 피아노/김대영

MASULSA_마술사 유호진

일 시 11월 29일(금)-12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8:30 (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1층 7만원, 2층 5만5천원
문의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 2012년 세계마술 챔피언십에서 아시아인 최초 그랑프리를 수상한 마술사이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마술연맹 '올해의 마술사'로 선정된 마술사 유호진의 무대.

그동안 세계 최고의 마술팀인 '더 일루셔니스트(The Illusionists)'의 전속 마술사로 있으며 3천회 이상의 공연을 가져온 유호진의 첫 단독콘서트로, 신비로움을 뛰어넘어 인간의 아름다움을 마술적 기법을 통해 스토리텔링화하는 휴머니티 마술 공연을 선보인다.

연극 | Play

극단 새벽 연희극 히로시마 메시지

일 시 10월 24일(목)-12월 14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10월 30일, 11월 7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00 공연) 효로민락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독립 예술(인디아트)운동과 소극장운동을 이어 온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레퍼토리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히로시마 메시지’. 홍가이의 ‘히바쿠사(피폭자)’를 원작으로 한 ‘히로시마 메시지’는 지난 1995년 극단 새벽이 해방 50주년을 맞아 초연한 작품으로, 한국인 피폭자인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강제징용 피폭2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다.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독립 예술(인디아트)운동과 소극장운동을 이어 온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레퍼토리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히로시마 메시지’.

홍가이의 ‘히바쿠사(피폭자)’를 원작으로 한 ‘히로시마 메시지’는 지난 1995년 극단 새벽이 해방 50주년을 맞아 초연한 작품으로, 한국인 피폭자인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강제징용 피폭2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다.

극단 어니연극 마중

일 시 12월 4일(수)-31일(화) 매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24일부터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 611-8518



남편과 사별한 70대 할머니 옥주가 남편 만식과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인극 ‘마중’.

내영 역안, 옥주는 대표소에서 기차표를 끊으려 하는데 역무원은 보이지 않고 소리없이 남편 만식이 등장한다. 그는 옥주의 남편이지만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 옥주와 만식은 옥식각신 실랑이를 벌이는데 살아온 날들의 회한을 하나씩 풀어내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 양진철, 황미애가 노부부로 분해 관객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준다

● 작/강경은 ● 윤색, 연출/전상배

연극 뷰티풀 라이프

일 시 10월 31일(목)-2020년 1월 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12/24일 오후 4:00, 7:00, 12/25 오후 3:00, 6:00, 12/31일-1/1일 오후 3:30, 6: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탄탄한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무대로 대학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 ‘뷰티풀 라이프’.

평범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낸 2인극 ‘뷰티풀 라이프’는 청년시절부터 노년시절의 주인공들을 심도있게 표현한 배우들의 연기력과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공연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일 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못말리는 다섯 수녀의 배꼽잡는 장례비 마련 프로젝트 코미디 뮤지컬 ‘년센스’.

미국의 극작가 단 고긴이 대본, 작곡, 연출까지 맡은 ‘년센스’는 1985년 12월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되고 있는 브로드웨이 최장기 흥행 뮤지컬로, 국내에서는 지난 1991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입소문을 통해 천만 관객 신화를 달성한 작품이다.

다섯 수녀가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포복절도할 무대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펼쳐진다.

기타공연장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일 시 12월 20일(금)-2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연말 전막 낭독 쇼케이스를 거쳐 올해 1월 부산 초연, 4월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앵콜공연.

미국 노동운동의 이정표로 통하는 '할란카운티 탄광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는 바버라 코플 감독의 영화 '할란카운티 USA(1976년 작)'를 모티브로 삼은 국산 창작극으로, 1974년 켄터키 지역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기를 다루고 있다.

콘서트 | Concert

해운대문화회관 송년콘서트
Show me the 힙합

일 시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수험생 본인 5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2019-20 바이브 전국투어 콘서트
발라드림 VI-극한발라드

일 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19 김연우 연발 콘서트
오마이갓연우

일 시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8:00 KBS 부산홀
입장료 SR석 14만3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이은결 크리스마스 공연
MAGIC & ILLUSION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00, 25일 수요일 오후 1:00, 5: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여온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매직콘서트.

대한민국에 마술이라는 장르를 알리고 한 단계 발전시킨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인 이은결은 지난 20년간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세계적 마술가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매직 디렉터이자 대형 팝스타의 쇼 매직 디자인과 연출을 맡았던 돈 웨인이 예술감독으로 참여,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최고의 판타지를 선사한다.

행사 | Event

1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7:00 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문의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00 우주관 오디세이(6)
물리학의 최전선, 양자가 현실로 다가온다
● 강사/조승현(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3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4) 블루스
● 강사/이기영(동덕대 음악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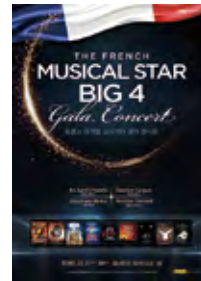
5일(목), 12일(목), 19일(목) 오전 10:00
무료 아카데미 '논어,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5일(목), 12일(목), 19일(목) 오후 7:00
무료 아카데미 '공학자의 손자병법·경쟁의 원리와 원칙'
● 강사/박승섭(부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6일(금) 오후 7:00 고마운 금요일 夜金 야금(2)
함께 보고 나누는 영화 '양치기들(The boys who cried wolf)'

프랑스 뮤지컬 스타 빅4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00
부산벙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프랑스의 뮤지컬 스타 4명이 펼치는 무대로, 지난 2005년, 2006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내한공연에서 '그랭 구아르' 역할을 맡아 '대성당의 시대'로 국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리샤르 샤레스트, 프랑스 3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로미오와 줄리엣' 프랑스 초연 당시 '로미오' 역을 맡은 훈훈한 외모의 다미앙 사르그, 실력파 뮤지컬 배우 스테판 메트로, '정글북', '캣츠' 등 굵직한 작품에서 다수의 주연을 맡은 니콜라스 투르코니가 출연, 뮤지컬 속 주옥같은 넘버들을 3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 어시스턴트/시네필 진진협

9일(월) 오후 7:00 영화 '에드워드'를 통해본 미국 초기 사진과 모션 픽처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10일(화) 오후 7:00 김유신 교수의 과학철학 산책(3) 영원과 시간(2)

● 강사/김유신(부산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16일(월) 오후 7:00 근현대 중국을 읽는 키워드들(3) 농과 城

● 강사/이보고(부경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



17일(화) 오후 7:00
슬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 강사/문성원(부산대 철학과 교수)

23일(월) 오후 7:00
무의식과 시각예술(5) 시선으로서의 영화, 눈과 응시·영화 '블레이드 러너'

● 강사/강성한(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2019년 아름다운 한해를 보내며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7-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지난 2003년 3월 부산 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0회 특집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3일(729회) 아름다운 성악 이야기
10일(730회) 속삭임과 같은 따스함 기악 이야기
17일(731회)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관현악 이야기
24일(732회) 이달의 책읽기 '모든 공간에는 비밀이 있다'(최경철 저, 웨일북)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5만원(3개월)
문의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810-2351-2



프로그램

코렐리 '크리스마스협주곡', 비발디 '사계' 중 '겨울' 구노 '아베마리아', 프랑크 '생명의 양식' 브람스 '도이치 레퀴엠', 베토벤 '합창 교향곡' 4악장 안드레아 보첼리 '크리스마스콘서트' 실황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전막 감상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입문자를 위한 영상음악 감상회.

전시 | Display

제 14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송년' 주제 애송시 낭송회

일 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시마당 제198회 시낭송회 및 창립 24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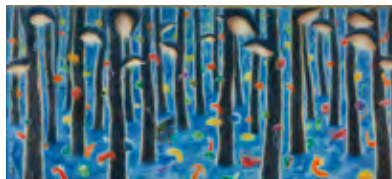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오성병원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갤러리 오로라 특별 기획전 권혁 '빛으로 빛은 도자기'

일 시 11월 15일(금)-12월 13일(금) 갤러리 오로라
문의 갤러리 오로라 055-374-3500

을숙도문화회관 기획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생명'

일 시 11월 22일(금)-12월 11일(수)
갤러리 을숙도 1, 2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일 시 12월 10일(화), 24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객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펼쳐 온 객근수는 그동안 5

천여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12월 강좌에서는 10일 '격정의 로맨티스트 베를리오즈', 24일 '클래식 교수들의 친구 브루크너'라는 주제로 베를리오즈와 브루크너의 음악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2019 아름다운 만남전

일 시 12월 2일(월)-12월 18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이미라 서양화 개인전

일 시 12월 20일(금)-12월 28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팔팔 끊고 나서 4분간

정우련 지음

산지니 / 240p / 1만 5천 원

부산의 정우련 소설가가 16년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을 냈다. 전작 소설집 <빈집> 이후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7편을 골라 다시 퇴고하고 수록했다. 16년 만에 책으로 만나는 작가의 소설이라 반갑기 그지없다. 수록된 작품마다 화자의 시선은 어린 소녀, 중년여성 등으로 계속 달라진다. 그 화자의 시선은 지난 시간동안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정우련 소설가의 빛나는 문체를 보여준다. ‘통증은 예술가 부부의 지친 사랑과 소모적 연정을 보여준다. 중년여성 이 느끼는 삶의 통증이 담담한 진술이라서 더 아프다. ‘말레 언니’는 어린아이가 지켜본 동네 식모언니의 애달픈 삶이다. 대평동에서 자란 작가의 유년시절 풍경이 작품의 바탕이 됐다. ‘우리들’에서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풋풋한 감성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각기 세상의 풍파를 거치고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는 과정이다. 정우련의 소설은 이렇게 독자를 스스로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다. 작가를 떠올리려 해도 곧 이야기로 빠져들게 되고, 등장인물에 자신을 투영시켜보게 한다. 긴 인생길 어디쯤 걸어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잠시 생각하는 것, 정우련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다.



조율의 시간

이종열 지음

민음사 / 296p / 1만 4천 800원

서울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수석조율사인 이종열 명장의 피아노 조율 이야기. 64년 경력의 대한민국 조율명장 1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피아노는 서양 고전 음악은 물론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연주만큼 조율이 중요하다. 이 명장은 피아노를 조율하는 일에서 세계 수준에 오른 한국인이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예브게니 키신, 라두 루푸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 명장에게 찬사를 보내며 스타인웨이, 도이치그라모폰의 소리 기술자들이 그에게 경탄을 표한다. 이 책에서는 공연 전 연주자의 불안함과 그에 응하는 조율사의 스트레스가 조율의 시간을 거쳐 훌륭한 연주와 뽀뽀함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명장은 “조율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면 피아노 고쳐 주는 아저씨에 불과할 테지만, 나는 조율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조율이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을 잘 못하면 결코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소리에 힘이 갖추어지면 조율사가 감동하고 다음으로 연주자가 감동하고 끝으로 청중이 감동한다”고 말한다.



한국영화 100년 100경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지음

돌베개 / 280p / 3만 원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물론이고 한국 영화계의 영예,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이었다. 2019년이 한국영화 역사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 기쁨은 더 컸다. 1919년 연쇄극 <의리적 구토>를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영화인이 한자리에 모인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영화 100년 파노라마를 펼쳐 보인다. 이 책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제작현장, 산업, 학계의 전문가들이 주제 목록을 정리하고 한국영화의 여러 표정과 목소리를 담았다. 한국영화 100년사를 100가지 장면으로 조망했다. 한국영화 역사의 중요한 사건, 영화제작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 낸 주요 작품, 시대를 풍미한 영화인, 특수한 장르, 영화 정책과 극장문화, 영화 마케팅 산업까지 다채로운 100가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소중한 영화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영화 100년이 걸어 온 길을 함께 걸어보자. 팬들과 영화가 함께 해 온 감동의 순간들이 그 시절 극장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윤영기 사무처장, 변원탄 양산병원 이사장, 도용복 사라토가 회장 등 후원회원 및 가족 90여명과 이용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수현)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로비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리셉션이 펼쳐졌다. 또, 후원회원들은 이번 로비음악회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재단 출범 이후 처음 제작한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단체 관람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 (재)부산문화회관 다듬채 개관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이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습공간인 다듬채를 개관한다.

건물명인 ‘다듬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인들이 스스로를

다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몸과 기예를 다듬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상 2층, 연 면적 733.31㎡ 규모에 1층 무용연습실, 2층 음악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은 기존 부산문화회관 건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화강석을 사용했으며, 붉은 색 창호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살렸다. 207㎡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두 곳의 연습실은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재와 방음설비 등 최고의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연습에 필요한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무용연습실은 무용 연습에 적합한 높은 층고로 지어졌으며, 그랜드 피아노가 구비된 음악연습실은 무대단과 보편대, 의자 등을 구비하면서 4관 편성의 교향악 연습도 가능하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11월 29일 다듬채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관은 오전(09~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나뉘어 신청가능하며, 사용료는 오전 4만원, 오후·야간 5만원, 그리고 피아노 사용료는 1회 1만원이다. 이번 다듬채 개관으로 앞으로 연습공간이 부족하여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기고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음악경험의 기회 부여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후보 경선
공연을 지켜보고

오지희 음악평론가,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 부산시립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정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선방식으로 지휘자를 선정하는 길은 실력이 검증된 지휘자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도 그 과정이 관련자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모제를 통한 방식은 경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절차를 거쳐 지휘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와썹으면 하는 지휘자가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 배를 탄 단체를 이끄는 지휘자 역량에 따라 그 배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에 따른 적합한 지휘자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단체별로 어떤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인지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다르고 바라는 조건도 제 각각이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책임자라고 생각해 스스로 선택한 결과도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불확실성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천과 경선을 통한 수석지휘자 선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부산시립합창단의 현재 상태에서 최적화된 지휘자를 선정해 미래에 별

어질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음악 발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이번 경선에 참여한 지휘자, 합창단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음악경험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런 추천과 경쟁을 통한 선출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과연 음악에도 경쟁이 필요할까? 경쟁은 필연적으로 평가를 수반한다. 아마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가장 고심한 대상

은 부산시립합창단일 것이다. 연주자 입장에서 음악이라는 예술장르는 개별 작품의 특성과 연주에서 드러나는 개성이 중요하기에 미적 대상을 향해 주관적 체험을 점수화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미적 대상을 재현하는 매개체인 지휘자의 역량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모호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음악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음악가들도 당시 음악환경이 제공하는 교회와 궁정, 콘서트 장에서의 지휘와 연주를 맡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완성도 높은 예술을 향한 음악가들의 집념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실을 맺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많은 작곡가와 연주자가 초연을 하고 비평가와 관객의 반응에 전전긍긍했는지에 관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고전으로 남겨진 걸작, 명연주가 시사하는 진실은 탁월한 작품,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 수준을 만들기 위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평가받고 고민하고 경쟁했다는 데에 있다.

6월 28일, 9월 26일, 11월 19일, 세 번의 경선을 통해 부산시립합창단은 세 명의 지휘자와 각각 무대에 섰다. 세 번의 음악회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접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첫 번째 지휘자 김인재는 '6월의 기억', 두 번째 지휘자 이기선은 '자연을 노래하다', 세 번째 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케(A. Stanache)는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준비한 기량을 펼쳤다. 동일한 합창단원이 세 명의 지휘자와 같은 무대에서 연속해서 연주회를 가진 그 자체가 부산시립합창단 입장에서는 특별한 음악적 사건이었고 세 번에 걸친 연주경험은 곧 자체 실력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잣대로도 작용했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와 관련된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을 선정했기에 지휘자가 정해진 주제에 적합한 레퍼토리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도 관전 포인트였다. 요즘같이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새로 만난 단원들과 짧은 시간에 음악적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됐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관객 입장에서든 경선이 야기하는 흥미와 관심을 화두로 자연스럽게 합창음악을 넘어 클래식 음악 전반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서 경선이라는 선출방식을 통해 모두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휘자, 합창단원, 관객은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최상의 음악 연주를 보여주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사실 세 명의 지휘자는 모두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합창단을 이끌어 관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지휘자, 프로그램이 표방한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합창이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한 지휘자, 진정한 합창 앙상블 음색을 구현해 부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 지휘자. 세 지휘자는 각각 구현할 수 있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최종 후보인 두 지휘자 중 누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부산시립합창단은 지금보다 나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지금 부산시립합창단이 처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따진다면 그 때는 합창단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화된 지휘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관객입장에서 세 번에 걸친 경선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역량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곡의 특성이나 장식적인 효과음에 따라 잠깐은 부족한 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경선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노출된 합창단의 음악성 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볼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훌륭한 지휘자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갖춘 프로 합창단원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중요하다. 정확한 음정과 발음, 성부간의 음악적 균형감, 곡의 특성에 따른 정교한 울림, 작품을 완벽히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 합창단원도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최고의 음악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음악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도한 경선을 통한 선출방식은 관련자 모두가 긴 시간을 거쳐 결론을 내야하는 녹록치 않은 방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처방으로 보인다. 선정과정에서 노출된 사항을 점검하고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산시립합창단이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제 몫을 다 한 것이다.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부산문화회관 대표로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 1년은 한마디로 다사다난(多事多難)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속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1년을 저의 관점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2대 대표이사에 부임한 저는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만만찮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본부장, 사무국장, 팀장 등 빈자리가 많았고, 더군다나 7개 시립예술단체 중 무려 6개 단체의 예술감독 자리가 모두 공석 예정인데다가 예술단원 수 십 명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0여 명의 문화회관 직원들은 재작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각처에서 새로 모인 지 얼마 안 되어서 본부 간, 팀 간, 직원 간 화학적 결합도 시급해 보였고, 임금 사정도 시 산하 문화기관 중 최하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직원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런 연유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토대가 매우 약했고, 그만 두는 직원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극히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대로 어지러운 상황은 마치 급하게 재단법 인화, 시민회관 통합, 조직 재구성이라는 성채를 쌓다보니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성채를 재건하기 위해 우선 빈자리를 좋은 분들로 채우는 일을 서둘러야 했고,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처방을 내려야 하는 일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눈술시험을 도입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예술감독을 비롯하여 모든 조직의 빈자리를 채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거리를 좁히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임금 최하위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께 좋은 공연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적합한 ‘공연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시민들은 1년 여 앞서서 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의 모든 공연을 미리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악 중심으로 편식을 하던 시민들께 연극, 무용도 균형 있게 보시도록 배치했습니다. 처음으로 무게감 있는 연극(율리우스 카이사르)과 오페라(리골레토)를 자체 제작하여 좋은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제작 역량을 높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술감독 추천과정에서 지역을 배제했다는 한 신문의 지속적인 비판을 들으면서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 종사자로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극장장의 손편지 3). 그리고 그 방식은 지역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키우는 시도들도 같이 해왔습니다. 즉, ‘부산예술인 스타 육성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기성예술인들에게는 큰 규모의 제작과 공연 경험을 갖도록 객원연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앞서 말한 자체 제작 공연에 지역 배우와 성악가들에게 출연의 문을 대폭 열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 미래의 물결(new eyes, next wave)’이라는 주제의 페스티벌을 신설했습니다. 12월 말에 열리는 8편의 공연축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공연에 ‘부산’이라는 주제나 소재를 넣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과 마케팅, 무대기술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지역예술인을 위한 예산 비율도 종전보다 세배 늘렸습니다. 1년 전만해도 ‘부산문화회관에 부산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달라진 면모를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부산의 문화생태계도 훨씬 더 풍성해지겠지요.

이 밖에도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증가, 회원 배가 캠페인, 이를 활용한 고객소통 방식의 혁신, 고객지원센터 개설 그리고 끝도 없는 시설 개선과 서비스 공간 확충 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실하게 쌓아 올린 ‘성채’

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방송에서까지 비판하던 한 기획사 대표에게 최근 “부산 문화회관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직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장서서 직원들을 이끄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서 파견된 본부장에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시민을 보고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시민을 위한 길이므로 도와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만일 대표님이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저는 앞장서서 반기를 들 것입니다.”

다시 시민을 위한 길을 생각하며 고삐를 다잡습니다. 이제는 좀 속도조절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해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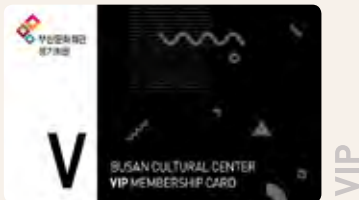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할인(입차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회원가입안내
 정기회원 가입안내



제558회

베토벤 | 삼중 협주곡
L. v. Beethoven | Triple Concerto
말러 | 교향곡 제4번
G. Mahler | Symphony No.4

Beethoven 250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1월 16일 THU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김이정 E-jung Kim, Violin
첼로 양욱진 Ukjin Yang, Cello
피아노 이미연 Miyeon Lee, Piano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제561회

비발디 | 시몬니아
A. Vivaldi | Sinfonia, RV112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J. S. Bach | Brandenburg Concerto No.3
모차르트 | 교향곡 제41번 "주피터"
W.A. Mozart | Symphony No.41 "Jupiter"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3월 27일 FRI 19:30 중극장 Medium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부산시향은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아늑한 중극장에서 비발디, 바흐, 모차르트의 명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박한 규모로 변신한 부산시향의 색다른 모습을 기대하세요!

베르디 | "운명의 힘" 서곡
G. Verdi | 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베르디 | "운명의 힘" 中 "평화, 평화를, 신이여"
G. Verdi | "Pace, pace, mio Dio" from "La forza del destino"
푸치니 | "라 보엠" 中 "내 이름은 미미"
G. Puccini | "Si, mi chiamano Mimì" from "La bohème"
푸치니 | "나비 부인" 中 "어느 낯 낯"
G. Puccini | "Un bel dì, vedremo" from "Madama Butterfly"
말러 | 교향곡 제4번
G. Mahler | Symphony No.4

1월 17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랜 만에 부산시향이 연주하는 말러이기도 하죠. 말러가 직접 밝혔듯이, 교향곡 4번의 무거운 심은 마지막 악장인 '천국의 삶'에 실려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분은 2019년 송년음악회에서 활약했던 소프라노 서선영이 노래하며, 두 번째 날에는 그녀가 들려주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주에서는 아리아 대신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을 연주하여 베토벤 탄생 250년을 기념합니다.

The Maurice Ravel Cycle I - Complete Orchestral Works 2020-2022



제562회

하롤라 | 클라리넷 협주곡
K. Hakola | Clarinet Concerto
김택수 | 짬! 부산시향 위촉 세계초연
Texu Kim | Zzan!! World Premier Commissioned by BPO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M. Ravel | "Daphnis et Chloé" Suite No.2

Cheers!
짬!

4월 17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작곡 김택수 Texu Kim, Composer
클라리넷 김한 Han Kim, Clarinet

핀란드방송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은 끼와 재능이 넘치는 연주자입니다. 2019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일ARD 국제콩쿠르에서 당당히 2위와 청중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이 때 맥남이 핀란드의 현대작곡가 카요 하롤라가 쓴 흥겨운 클라리넷 협주곡을 어려움에 신사합니다. 후반부는 부산을 테마로 작곡된 작곡가 김택수의 짬!이 초연되고, 모리스 라벨의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명작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으로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제559회

베토벤 | "피델리오" 서곡
L. v. Beethoven | Overture to "Fidelio"
드뷔시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국내 초연)
C. Debussy |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Korean Premier)
드뷔시 | 목신의 오후 전주곡
C. Debussy |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드뷔시 | 바다
C. Debussy | La mer

Beethoven 250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2월 14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Adrien Perruchon, Conductor

서울시향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의 필파나 수석주자로 일하고 있던 청년은 2014년 어느 날 대체지휘자로서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을 지휘하게 됩니다. 2016년에도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지휘자 대신 심포니를 지휘하고 LA필하모닉에도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아드리앵 페뤼송,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필파니스트인 동시에 최근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이 음악가가 드뷔시의 작품들을 가지고 부산에 옵니다. 이 연주회는 프랑스 대학명시대를 배경으로 작곡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으로 문을 엽니다.



제563회

리게티 | 아트모스페르
G. Ligeti | Atmosphères
호프마이스터 | 비올라 협주곡
F. A. Hoffmeister | Viola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5

Beethoven 250
(un)clear
모호함과 확고함

5월 15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비올라 윤진원 Jin-Won Yoon, Viola

시작도 끝도 없는 음악. 리게티의 말처럼 어쩌면 이 작품은 가장 모호한 성격의 오케스트라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모스페르'는 현대음악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며, 여러분은 이 음악에서 멈춰있는 것 같으면서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음향의 큰 덩어리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하게 이 음악에 몸을 맡기신다면, 매우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베토벤은 교향곡 5번에서 단순한 음악적 언어를 구사합니다. 운명교향곡이 가장 베토벤다운, 강인하고 직설적이며 명확한 어법을 가진 명작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작품 사이에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고전주의 비올라 협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제560회

스메타나 | "나의 조국" 中 "몰다우"
B. Smetana | "Vltava" from "Má vlast"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F. Liszt | Piano Concerto No.1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A. Dvořák | Symphony No.8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3월 6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피아노 홍민수 Minsoo Hong, Piano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으로 부산 관객과 처음 만났던 이민형 부지휘자는 이번에도 드보르작을 선택했습니다. 교향곡 8번과 스메타나의 작품으로 여러분께 보헤미아의 감성을 전합니다. 2017년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홍민수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당시 입상곡인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무대에 데뷔합니다.



제564회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L. v. Beethoven | Overture to "Die Geschöpfe des Prometheus"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2
마르케스 | 단송 제2번
A. Márquez | Danzón No.2
베토벤 | 교향곡 제1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1

Beethoven 250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6월 19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백건우 Kun-Woo Paik, Piano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7년 만에 다시 부산시향과 함께 합니다. 거장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2번을 선택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최수열 예술감독도 이에 맞추어 청년 베토벤의 기발하고 상상력 아이디어로 가득찬 첫 번째 교향곡을 선곡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리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어서 연주회의 희소성이 큼니다. 일 반적인 베토벤의 호상회에서 느껴지는 악성의 무겁고 진중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밝고 유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토벤과 함께 역시 작곡가 마르케스의 흥곡을 같은 무대에서 들는 것도 꽤 재미난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20년 정기연주회

Beethoven 250
Frame
틀



Beethoven 250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7월 21일 TUE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제565회

멘델스존 |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F. Mendelssohn | Symphony No.4 "Italian"
베토벤 | 코리올란 서곡
L. v. Beethoven | Coriolan Overture
레스피기 | 로마의 소나무
O. Respighi | Pini di Roma

휴가철이군요! 이탈리아로 클래식 음악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산시향이 마련합니다. 밝은 에너지로 가득찬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과 고대 로마 전설의 영웅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그리고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작품을 만나 보시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의 카펠마이스터로 일하고 있는 홍석원 지휘자가 부산시향과 처음 인연을 맺습니다.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W. A. Mozart | Violin Concerto No.5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4

제568회

11월 10일 TUE 19:30 중극장 Medium Theater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협연 오디션 합격자
Winner of BPO's Audition, Violin

틀을 부수다. 틀에 빠하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다루는 방식에 따라 획기적이 될 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요. 베토벤은 형식적으로 획기적이다 못해 파괴적이었던 자신의 영웅교향곡을 뒤로하고 '고전적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또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모차르트는 궁정악사라는 틀을 부수고 나오면서 가장 형식에 충실한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남겼지요. 공개오디션을 거쳐 부산시향의 전 단원들에게 검증된 바이올리니스트 '누군가'와 부산시향의 부지휘자가 가장 형식적인 하지만 독보적인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Beethoven 250 Again, R. 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어게인! I

9월 23일 WED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Violin

제566회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L. v. Beethoven | Violin Concerto
아이브스 | 대답없는 질문
C. Ives | The Unanswered Question
슈트라우스 | 죽음과 정화
R. Strauss | Tod und Verklärung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완주한 후, 다시 만나는 첫 번째 슈트라우스입니다. 더욱 다듬어진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음과 정화' 전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연주됩니다. 미국 현대음악을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 찰스 아이브스의 대표작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해 '존재에 대한 해묵은 질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반부에 들려드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의외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기피하는 곡입니다. 독주자들이 맹만한 내공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작품의 좋은 해석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클라라 주미 강이 해석한 베토벤은 믿어서도 좋습니다!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11월 24일 TUE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최희준 Hee-Chuhn Choi, Conductor

제569회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D. Shostakovich | Symphony No.7 "Leningrad"

부산시향이 2019년에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연주했듯이, 2020년에도 긴 연주 시간을 가진 교향곡 단 한 곡만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열다섯 개의 교향곡 중 중요한 대작인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가 무대에 올러지고, 이 곡을 수 차례 연주한 바 있는 수원시향 예술감독 최희준의 지휘행에 맡깁니다.

The Maurice Ravel Cycle II - Complete Orchestral Works 2020-2022



Beethoven 250 Unique 개성

10월 23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최희연 HieYon Choi, Piano

제567회

라벨 |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M. Ravel | Alborada del Gracioso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라벨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M. Ravel |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J. Brahms | Symphony No.2

브람스만의 매력에 있습니다. 가을은 특히나 브람스를 듣기 좋은 계절이죠. 브람스의 천원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교향곡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만끽하세요. 이와 어울릴 베토벤의 독창적인 보물같은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서울대 최희연 교수가 합연합니다. 금호아트홀이 기획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완주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이자 학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따뜻한 서정적인 두 곡 사이에는 대조를 이루어 다음 곡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라벨의 인상적인 관현악 두 작품이 배치됩니다.



스트라빈스키 | 인사 전주곡
I. Stravinsky | Greeting Prelude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F. J. Haydn | Trumpet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제570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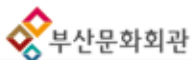
12월 17일 THU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Trumpet
소프라노 박은주 Eun Joo Park,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테너 하석배 Seokbe Ha, Tenor
베이스 함석현 SeokHeon Hamm,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스트라빈스키 | 인사 전주곡
I. Stravinsky | Greeting Prelude
모차르트 | 오보에 협주곡
W. A. Mozart | Oboe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12월 18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오보에 조정현 Jung-Hyun Cho, Oboe
소프라노 박은주 Eun Joo Park,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테너 하석배 Seokbe Ha, Tenor
베이스 함석현 SeokHeon Hamm,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Busan Cultural Center

문의 051-607-3111-31(부산시향), 6075-61(정기회원)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제570회 (송년음악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할인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임산부

20% 정기회원, 학생(24세이하), 외국인

2020년 정기연주회 티켓오픈

3 - 7월 공연 ▶ 11.26 화 오전 10:00

9 - 12월 공연 ▶ 12. 5 목 오전 10:00

※ 1 - 2월 공연 ▶ 판매중

1770년 12월 17일, 서양음악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악성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250년 후 같은 날, 부산시향이 그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려 합니다. 합창교향곡과 함께, 베토벤에게 영감을 준 두 선배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프로그램에 kerül됩니다.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창작극대본공모전

☑ 공모개요

■ 공모목적

지역예술인의 공연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사업 확대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분량 제한없음)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가능
(※ 나이제한 없음)

☑ 수상내용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서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이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년 12월 20일(금)~12월 31일(화) 24:00까지 (12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3일 이내 접수희신메일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필요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

☑ 공모내용

-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작성
- 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형식 상관없음)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부산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개인

☑ 수상내용

- 대상(후원회장상) : 총 3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1명, 상금 70만원)
- 최우수상: 총 6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2명, 상금 50만원)
- 우수상: 총 9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3명, 상금 30만원)
※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트로피, 부상 수여
※ 수상자 중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별도 수여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12월 31일(화)(12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결과발표

- 2020년 1월 31일(금)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2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Opera & Musical Highlight

오페라 & 뮤지컬 하이라이트

오페라의 유령, 알라딘 ost 등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음악
피가로의 결혼, 리콜레토 등 주옥같은 오페라의 콜라보레이션



수석지휘자 이영근 / 바셀 이영주 / 소프라노 김태영 / 테너 윤서준 / 바이올린 박요섭 / 색소폰 최정섭

Program

- 스태브 수필곡 / 뮤지컬 '위키티드'(오케스트라 편곡)
- W. A.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가 못하리(Non piu andrei)
- G. 베르디 / 오페라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A Donna e mobile)'
- 앤제스틴 리버 / 그레타이다
- A. L. 웨버 / 뮤지컬 '37세기의 유령' 중 'All Ask of You'
- 프랭크 와일드혼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 A. L. 웨버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 V. 모차 / 차르다시
- 말린 멘젠 /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무용)
- R. 번스타인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일모레 댄스'

2019.12.17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보통세 균일 2,000원 / 어린이 1,000원 / 부산문화회관 / 주권 부산시체육공원 / 예매 www.bcc.or.kr /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 서울메트로(무선) 02-818-3011 / 서울메트로 02-818-3011 / 02-818-3011 / 100M 타워권 공연 등록 7500원 / 02-818-3011 / 02-818-3011 / 02-818-3011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Program

- 김순애 | 그대 있음에 (1991)
- 이수연 | 내 맘의 강물 (1991)
- 김동진 | 가고파 (1991)
- 김효근 | 눈 (1991)
- 지휘 최수연
- 소프라노 서선영
- 메조소프라노 임승미
- 테너 정효윤
- 바이올린 김형규
-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 관주시립합창단

베르디 | 그랑막 제9번 '합창'
L.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Chorus', Op.125

2019. 12. 19 목 / 20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협찬 SKK 부산은행

티켓 유석 30,000원 / 6석 20,000원 / A석 10,000원 / 예매 www.bcc.or.kr / 문의 607-3111 / 607-3112 / 607-3113 / 607-3114



2019. 12. 21 (목)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수연 / 바이올린 김연정 / 엘레노 캄미온

나레이션 박찬영 / 소프라노 김희정 /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주최 부산문화회관 / 후원 부산광역시체육공원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문의 051-607-3117 / 서울메트로 02-818-3011



객원지휘 전성수

The 204th Regular Concert

ODYSSEY

(긴 여정)

- | 최성환 | 아리아왕 환상곡
- 캐럴 모음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외>
- | 최경만 | 태평소 협주곡 <호적동류> 태평소-김경수
- | 이은호 |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
- | 민영치 | 삼장구 협주곡 <Odyssey> 삼장구-송귀철
- | 김성경 | 풍류수채화

2019. 12. 24(화)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 후원 부산광역시체육공원 / 입장료 / 균일 10,000원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문의 051-607-3120, 3102



The Nut Cracker

2019. 12. 6 | 금 | 7:30PM - 7 | 토 |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국재신문

출연 | 국립발레단

티켓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48개월 이상 입장 가능)

문의 및 예매 |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2019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부산시립무용단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공감



2019. 12. 10 (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2,000원 문의 | 607-3121-2 / www.bscc.or.kr



오리새끼

THE UGLY DUCKLING

2019. 12. 13 (금) 11:00 & 19:30 | 2019. 12. 14. (토) 1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공연연령 만 4세 이상
주최 부산문화회관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 1인 포함) / 30% 정기회원(본인적용), 청소년, 단체 20인 이상
공연시간 70분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30-5200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립예술단

Happy New Year 2019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2019. 12. 31 (화) 22: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리 여자결, 최아는 여정삼, 손지리노, 김선애, 피로소프라는, 핵제론, 이너 국물중, 서우 송지현,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moc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2차 가입 캠페인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회원인 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19년 9월 1일(일) ~ 12월 31일(화)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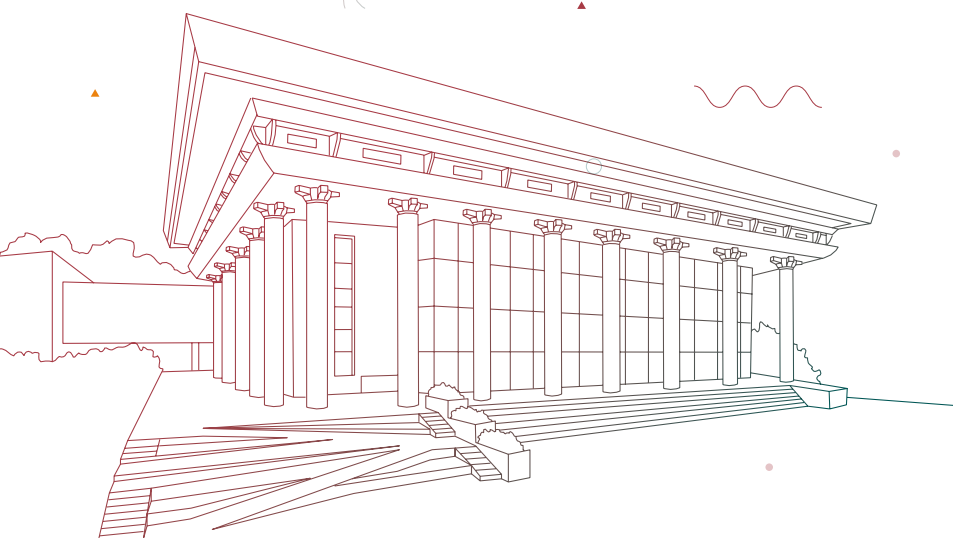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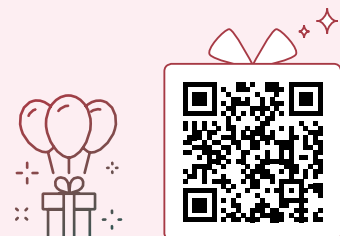
가입 신청서 작성 또는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가입

경품내용

선물1	10명	2020 부산문화회관 상반기 공연 초대권(1인2매)
선물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10만원 상당)
선물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5만원 상당)
선물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3만원 상당)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당첨자 발표

2020년 1월 중, 홈페이지 발표



뮤지컬배우·성악가
김소현



뮤지컬배우
손준호



뮤지컬배우·가수
이지훈



지휘
서희태



2019 Winter Musical Concert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12.13^{FRI} PM 7:30 / 12.14^{SAT} PM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인터파크 sum 썸뱅크 VIP 99,000원 / R 77,000원 / S 55,000원

주최 부산일보사 부산문화회관 제작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BNK 부산은행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 부산일보 문화사업국 051-461-4437

박 달 리

꼬등어
GGO
DEUNG O

GGOOD DESIGN
산업자원부 선정

iF
iF Award



Facebook



Instagram



Twitter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 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꼬등어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주)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KBRAIN
POWER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우수디자인전문회사
Best Design Company in Korea

KOREA
DESIGN
AWARD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reddot award
Design concept

iF
iF AWARD
2017

K-ESP
기술전문기업

인재육성중소기업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2020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2020.1.10. (금) 19: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